

# 2015년 2학기 추계 답사지

- 고부, 군산, 고창 -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여우띠이-



## 여는 글 ... 5

\* 답사일정

### - 고부 지역

## I. 갑오농민전쟁 당시 고부의 모습 ... 7

1. 지리적 배경
2. 사회경제적 배경
3. 말목장터
4. 만석보와 고부관아터

## II. 갑오농민전쟁의 성격 및 주도세력 ... 16

1. 갑오농민전쟁의 파악의 어려움
2. 민중저항의 성격
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4. 정읍전봉준유적(전봉준선생고택지)
5. 동학혁명모의탑

## III. 제 1, 2차 갑오농민전쟁의 전개과정 ... 28

1. 고부농민봉기
2. 3월 봉기
3. 집강소통치 시기
4. 9월 재봉기(제 2차 동학농민운동)
5. 백산성지
6. 황토현 전적지

## IV. 갑오농민전쟁의 의의와 세계의 농민전쟁과의 비교 ... 37

1. 갑오농민전쟁의 의의
2. 독일농민전쟁과 갑오농민전쟁
3. 태평천국운동과 갑오농민전쟁
4. 베트남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
5.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군산 지역

## V. 근대도시 군산 ... 48

1. 군산 개관 및 특징 - 역사
2. 제국주의의 유형 - 군산 개항의 필요성과 동아시아 제국의 건설
3.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보는 여러 관점
4. 동국사
5. 부잔교
6. 꾀보선창

## VI.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식민지 지주제 ... 62

1.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담론
2. 군산지역의 식민지 지주제
3.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 가옥)
4. 이영춘 가옥
5. 시마타니 금고
6. 호남관세전시관(구 군산세관)
7. 조선은행 군산지점

## VII. 일제하 지식인 활동과 불교, 내소사, 고창읍성 ... 82

1. 김성수와 채만식
2. 불교의 근대화, 일본화, 민중운동
3. 내소사
4. 고창읍성

## 여는 글

### \*답 사 일 정

11월 5일 (목)	
7:00~8:00	연세대학교 남문 집결
9:50~10:05	휴게소
11:45~12:15	백산성지 (؟쪽)
12:15~13:10	만석보터 유적지
13:10~14:10	점심식사(동방식육식당) (？쪽)
14:10~14:40	말목장터 (？쪽)
14:40~15:20	정읍 전봉준 유적 (？쪽)
15:20~16:05	황토현전적지 (？쪽)
16:05~16:55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쪽)
16:55~18:00	동학혁명모의탑 (？쪽)
	주산(죽산)마을(+고부관아터)
18:00~20:30	저녁식사, 군산청소년수련관

11월 6일 (금)	
7:30~9:00	기상 및 아침식사, 집결
9:00~11:35	동국사, 히로쓰 가옥, 부잔교, 께보선창 (？쪽)
11:35~12:40	점심식사(한일옥)
12:40~14:40	군산세관, 조선은행, 근대역사박물관 (？쪽)
14:40~16:05	채만식 문학관 (？쪽)
16:05~17:00	이영춘 가옥 (？쪽)
17:00~17:55	시마타니 금고
17:55~18:25	군산청소년수련관

11월 7일 (토)

7:00~ 8:30	기상 및 아침식사, 집결	
8:30~ 11:30	내소사	(?쪽)
11:30~12:30	점심식사(내소식당)	(?쪽)
12:30~14:20	김성수 생가	(?쪽)
14:20~15:50	고창읍성	(?쪽)
15:50~20:00	연세대학교 남문	

# I. 갑오농민전쟁 당시 교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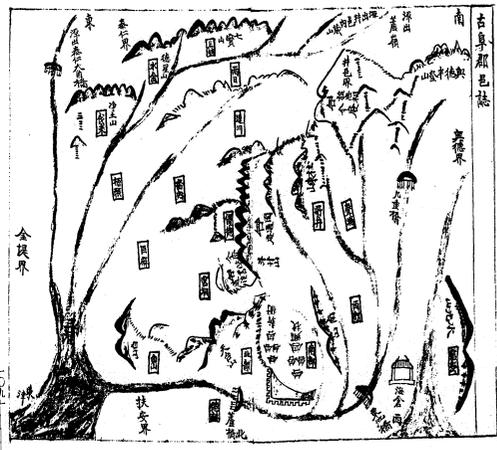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17, 18세기부터 집적된 조세수취제도의 모순과 지방 관리들의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전국 각지에 걸친 동시다발적 농민봉기로 표출되었다. 양란 뒤에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제시되지 않았고, 민중 스스로 그들의 침체된 생산력을 복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sup>1)</sup> 봉건적 지배체제와 지주제에 따른 농민경제의 파탄과 삼정의 문란과 수취제도의 혼란 등 향촌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이 농촌봉건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저항세력의 시대적 요구를 발생시킨 것이다. 60여년의 세도정치의 폐단과 더불어 개항 후 외국세력이 농민층의 경제에 침투하자 사회 안팎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어 동학의 출현과 함께 갑오농민전쟁이 야기되었다.

### 1. 지리적 배경



▲ 1915년의 고부면



▲ 고분군 여지도서

고부군은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비옥한 평야지대로 도내 다른 고을에 비해 풍요하고 군민들의 생활수준도 윤택한 편이었다. 정읍 내장산의 동진강 지류로부터 정읍천이 흘러 그 주변에 배들, 수금, 달천평야가 펼쳐져 있어 수리(水利)시설이 발달하여 영농에 유리하였다.<sup>2)</sup> 더욱이 서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어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산이 풍부하였고 이를 운반할 편리한 교통조건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배들평야의 농민들은 정읍천의 하류에 보를 놓고 이를 동명보라 불렀다. 심한 가뭄

1) 채길순, 2003, 「동학혁명의 전개 과정과 보은」, 『동학연구』 vol.13, p.27

2) 윤원호, 1994, 「특집논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19세기 고부의 사회경제」, 『전라문화논총』 vol.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p.28

철에도 배들평야만은 농사가 잘 되어 늘 풍년이었으므로 이를 일명 만석보라 하였다.<sup>3)</sup>



▶ 배들 평야

## 2. 사회경제적 배경

조선후기 사회는 토지가 사유화되고 일부 지방에 유착된 계층이 부를 목적으로 토지를 집적하여 지주-소작의 토지 생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주제는 개국 이후 외국 자본주의의 침투와 더불어 미곡의 상품화와 진행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궁방이나 아문과 같은 지배기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권력형 지주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소작인들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해지고 외국상인들의 영향으로 농민층의 몰락이 가속화된 것이다. 소농층 뿐만 아니라 18세기까지 존재했던 부농들까지도 그들의 재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sup>4)</sup> 이처럼 농민계층은 9할의 빈농층과 무전농층(無田農層), 1할의 중농 내지는 부농층으로 분화되어 농민층의 영세화가 계속적으로 촉진되었다.<sup>5)</sup>

### 1) 조세수취제도의 문제점과 농민수탈

19세기 후반의 삼정문란은 농촌사회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낳았다. 전세를 정확히 걷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방에 걸친 양전이 실시되어야 한다. 1819년(순조 9년)에 전국적으로 양전을 실시할 것을 잠시 거론하였으나, 중앙의 권력이 약했고 양전을 실시 한 뒤 전세를 거두어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3) 최현식, 1994, 「특집논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고부와 갑오동학혁명」, 『전라문화논총』 vol.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pp.129~131

4) 윤원호, 1994, 앞의 논문, pp.33~34

5) 김경순, 1988,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4~107

되어 시행하지 못했다. 이면적으로는 향촌지배세력 및 대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은닉시켜 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양전 사업에 반대하였고, 중앙권력은 이들을 제압할 충분한 힘이 없었다. 소출의 반을 田主에게, 나머지 반을 국가에 상납해야 했던 소작농들은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군정의 경우 각 군과 현을 한 단위로 良丁의 수를 파악하여 군역세를 배정한 군총제를 실시하였는데, 지배층에 의해 군액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 농민들에 대한 징세만 늘어난 것으로 보아(良人身役者) 이 역시 향촌지배층의 수탈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린 농민들은 사실상 부세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환곡으로 앞의 전정, 군정보다 더 심한 수탈에 시달려야 했다. 환곡 또한 군현 단위의 환총제로 운영되었는데, 농민의 가구수보다 더 많은 환곡을 배정받은 지방에서는 여지없이 농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족장이나 인징(隣徵)과 같은 부차적인 폐단까지 낳기에 이르렀다.<sup>6)</sup>

『고부군읍지』에 의하면 고부군에서 납부한 대동미 총 3232석 중 약 71.4%인 2549석이 중앙에 상납되었다. 이 같이 불균등한 상납비율은 대동법 시행초기에 전라도의 중앙에 대한 상납비율이 겨우 46%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후기에 중앙에 납부되는 지역별 미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부실해지고 지방의 관청과 관리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수탈을 일삼게 되었다.

고부군에서는 세곡의 운반과정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세금 징수가 발견된다. 당시 이 지역은 전세와 대동세를 지방 조창에서 경창으로 운반하지 않고 임선상납(賃船上納) 하도록 되어있었다. 본래 세곡은 현지의 선박으로 운반되었지만 대부분의 地土船은 크기가 작아 원거리 운반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임선상납으로 조운할 것을 규정한 지역이 몇 있었는데 고부군도 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토선 대신 경강선을 통해 세곡을 운반하였는데, 이때 지방 관리들과 경강상인이 결탁하여 곡식을 몰아서 사들인 다음 비는 부분을 지역 농민들에게 징수하여 납부하기도 하였다. 당시 각종 명목의 부가세와 잡세까지 징수하여 농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부가세는 주로 이 같은 세금 상납에 관한 것이 많았다. 지방 조창의 관리와 상인들이 결탁하여 조운고정에서 중간수탈을 행한 것이다. 또한 개항 이후 운선(輪船)을 통한 조운에도 각종 잡세를 신설하여 전운사가 거두어들였다. 각 지방에서 곧바로 상납되지 않고 중간의 지방관리, 상인, 그리고 전운국의 수탈로 조세수취제도는 그 자체로 혼돈이었다.<sup>7)</sup>

6) 김경순, 1988. 위의 논문, pp. 52~57

7) 윤원호, 1994. 앞의 논문, pp.36~40

## 2) 보부상과 외국 자본의 침투

신해통공 이후 관의 상업이 쇠퇴하고 사상들이 활동범위를 넓히자,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상품의 유통을 맡아 상업 활동을 벌인 대상들이 등장하였다. 당시 상업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장시는 조세납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상품화폐 경제와 농민수탈에 의한 상품유통 현상을 모두 담고 있었는데, 이 중 5개는 고부군에 위치하였다. 개항 이후 외국 자본이 침투하여 자본주의 상품이 유통되자 국내의 장시는 일전의 기능을 잃고 외국 자본주의의 상품시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곳에서 미곡을 비롯한 상품이 수출되어 국내 상인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영세했던 소농민 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 조운제도에서 드러난 상인과 지방관리의 결탁은 장시의 대외수출에서도 나타나 미곡의 상품화가 촉진되었고, 특히 고부군은 해안을 안고 있는 지역이었던 탓에 미곡의 반출이 여타 지역보다 심했다.<sup>8)</sup> 이때 지방의 관리들은 농민이 납세한 미곡을 관창에 보관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반출하여 해당 시기에 지방에서 개항지로 운송되는 곡식의 양이 급증하였다. 세미(稅米)를 상품화할 기회가 증가하자 지방관과 조세를 담당했던 관리들의 농민수탈도 함께 심해졌다. 당시 잉여곡물을 상품화하여 부를 축적한 상층 농민도 있었는데 그 수가 미미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비자급적인 필수품(겨울에 대비한 면포)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공박판매’의 형태로 미곡을 판매했다가 춘궁기가 더 비싼 가격으로 곡식을 사들이는 형편이었다.<sup>9)</sup>

한편 농민층을 압박했던 또 다른 세력으로는 유통 상품에 대한 전매권과 매매세를 징세할 권리를 가졌던 보부상이 있었다. 이들은 본래 상업 활동의 규모가 영세하였으나 대원군이 이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장시의 핵심 집단으로, 세력 확대와 함께 여러 특권을 행사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다.

## 3. 말목장터

말목장터는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에 있는 장터로 부안, 태인, 정읍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1893년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만석보 물세 징수 등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관아에 몰려가 세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농민들은 합법적 방법 대신에 봉기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1893년 11월 초, 전봉준을 비롯한 19명의 농민 지도자

8) 윤원호, 1994. 위의 논문, pp.54~55

9) 김경순, 1988. 앞의 논문, p.103

들은 봉기를 모의하고 격문과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재부임을 하게 된 1894년에 농민들은 궐기하기로 했다.

1894년 1월 10일 밤, 고부 농민들이 고부 관아로 진격하기 위해 1,000여 명이 합세하여 말목장터에 모였다. 그리고 말목장터에는 180년 정도 된 감나무가 서 있는데, 전봉준은 이 나무 아래에서 농민들에게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수탈의 실정을 알리고 농민 봉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깡이와 죽창을 들고 모인 농민들은 말목장터를 출발하여 고부 관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듯 동학 농민운동은 말목장터에 농민군이 집결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후 말목장터는 1차 봉기 직전까지 동학농민운동군의 진지 역할을 하였다. 말목장터는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말목장터 주변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이 지역은 면소재지의 사거리에 해당하는 지점이어서 당시에는 변화한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말목장터와 전봉준이 봉기를 주장했던 장소인 감나무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 110호로 지정되어 있다.



▲ 말목장터

#### 4. 만석보와 고부관아터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말 조선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반외세반봉건적 자주개혁을 추구하여 갑오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던 농민운동이다. 갑오농민전쟁은 넓게 보면 1892-1893년 진행되었던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에서부터 불씨가 피어올랐다고 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전쟁의 시발점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만석보사건’을 계기로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일어난 고부봉기이다.

만석보는 1838년 9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에 농업용 수리시설을 목적으로 만든 저수지로, 아무리 가물어도 이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배들 평에는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만석보(萬石淤)라고 불렸다.<sup>10)</sup> 고부군수 조병갑은 1892년 고부에 부임한 뒤 만석보 아래에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새 보를 쌓는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시켰으며, 보가 완성된 뒤 추수를 하게 되자 수세

1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전북 답사여행의 길잡이 1』, 돌베개, 코스 9를 참고함

명목으로 총 700여석을 빼앗아 가로챘다. 또 황무지를 백성에게 세금 없이 개간케 한다고 정부에는 문서를 꾸며놓고 추수할 때는 강제로 세금을 받아 횡령하여 갈취하였고, 부자로 보이는 백성들을 여러 잡다한 죄목을 물어 3만량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sup>11)</sup> 이외에도 수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던 조병갑의 횡포에 더 견디다 못한 고부농민들은 1893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등소하였으나 탄압당했다.<sup>12)</sup> 결국 농민들은 1894년에 전봉준을 필두로 만석보를 때려 부수고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깃발을 들고 고부군으로 진군하였다.<sup>13)</sup>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시발된 만석보의 터는 1976년 4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 5월 11일에는 2.5m의 만석보유지비가 건립되었었다.<sup>14)</sup> 만석보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농민들이 만석보를 혁파한 기념으로 세웠던 하송리 예동마을의 만석보혁파비도 볼 수 있다.



▲ 고부관아터

장터에 집결한 동학교인과 농민 수천여 명은 전봉준을 대표로 추대한 뒤 1월 10일 새벽 고부관아를 습격하였다. 고부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조병갑이 수탈로 모아놓은 수세미 1400석을 확보하였고, 이어 군사적 요충지인 백산에 축성을 하였다.<sup>16)</sup> 이후 전봉준은 봉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무장과 고창 및 흥덕 등을 경유하면서 고부관아를 재차 점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봉기의 목적이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이었음을 분명히 보임과 동시에, 보다 많은 군중이 백산에 집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sup>17)</sup> 따라서 고부관아 점령은 갑오농민전쟁을 통한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갑오농민전쟁은 만석보 사건을 계기로 고부관아를 습격함으로써 발발했다. 갑오년 당시의 고부는 인근 지역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고, 봉건관리들의 탐학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고부의 풍부한 물산은 탐관오리들의 표적이 되었다.<sup>15)</sup> 이러한 탐관오리 중 한 명인 조병갑의 횡포에 1894년 1월 8일부터 사발통문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말목

11) 전라금석문연구회, 2006, 「정읍 만석보 유지비」, 『탁본전시회 도록』, 47p

12) 박대길, 2012,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부봉기」,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83p

13) 전라금석문연구회, 위의 논문 47p

1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위의 단행본 코스9를 참고함

15)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위의 단행본 코스9를 참고함

16) 박대길, 위의 논문 86p

17) 박대길, 위의 논문 101p

주적 개혁시도의 초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함께 이에 대항하여 맨 처음 봉기의 횃불을 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기에, 고부관아터의 사적지로서의 의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당시의 관아 건물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고부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초등학교 바로 옆의 향교건물과 학교 뒤편에 남아있는 고부읍성의 흔적을 통해 과거 고부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일제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말살하기 위해 관아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웠다는 얘기가 필자는 역사적 근거를 확인하진 못하였다. 고부관아터는 2005년 6월 3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 김경순, 1988,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원호, 1994, 「특집논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19세기 고부의 사회경제」, 『전라문화논총』 vol.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최현식, 1994, 「특집논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고부와 갑오동학혁명」, 『전라문화논총』 vol.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채길순, 2003, 「동학혁명의 전개 과정과 보은」, 『동학연구』 vol.13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1 - 전북』, 돌베개, 1999
- 이상균, 「정읍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과 보존관리」, 전북사학 Vol.38, pp.107-131, 2011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전북 답사여행의 길잡이 1』, 돌베개,
- 전라금석문연구회, 2006, 「정읍 만석보 유지비」, 『탁본전시회 도록』
- 박대길, 2012,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부봉기」,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표. 갑오농민전쟁의 성격 및 주도세력**

## 1. 갑오농민전쟁 파악의 어려움

갑오농민전쟁은 후대의 사가들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다. 이는 갑오농민전쟁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내지 민중주의적 사가들은 이 봉기를 ‘동학농민혁명’ 내지 ‘갑오농민전쟁’이라 칭하면서 이를 근대적 ‘반봉건’, ‘반침략(반제)’ 민중운동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그러나 ‘혁명적’ 요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민족주의 사가들은 동학 천도교의 교리에 내포된 척왜양(斥倭洋), 保國(반침략), 人即天(평등주의) 및 후천개벽(後天開闢, 혁명) 등 사상적 요소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민중주의 사가들은 이 봉기를 동학이라는 특정종교와 일단 분리시킨 다음, 소위 ‘봉건시대’에 빈발했던 민란을 통하여 한국농민이 축적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계급의식에서 봉기의 ‘농민전쟁 peasant war’적 요인을 추출하는 경향이 있다.<sup>1)</sup> 이는 주도세력을 동학과 농민 중 어느 쪽을 중점으로 보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학사상이 혁명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혁명사상에 의거하여 농민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고 갑오농민전쟁 자체를 동학혁명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동학혁명설(東學革命說)’, 동학은 갑오농민전쟁의 外皮·外衣에 불과하다는 ‘동학외피설(東學外皮說)’, 그리고 동학은 종래의 민란·농민전쟁에서 사상과 조직을 주어 양자가 결합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東學과 농민전쟁의 結合說’이 존재한다.<sup>2)</sup> 따라서 갑오농민전쟁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민과 동학을 따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민중저항의 성격

민중운동은 대개 기존의 사회질서가 해이해지는 과정에서 대거 발생하는데 이것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 중 하나가 19세기 근대변혁기의 사회변동기이다.<sup>3)</sup> 조선은 양난을 겪으면서 기강이 해이해짐을 타서 방납의 폐해, 군납의 폐해가

---

1) 유명익, 1998, 『동학농민봉기와 갑오병장』, 일조각, pp.2~3 ; 김진운, 2001, 「제4장 甲午 東學農民運動의 목표와 방향으로서의 弊政改革案」, 『민족사상』 5(3), 한국민족사상학회, pp.136~137.

2) 신용하, 1995,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pp.2~3 ; 김진운, 2001, 위의 논문, p.137.

3) 신용하, 1980,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pp.11~41 ; 망월한국사연구소, 1989,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pp.15~21, 132~133 ; 김정의, 2001, 「갑오동학민중혁명운동의 위상」,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p.56.

누증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대동법·균역법을 책정하여 대처하였다. 이를 통해 수탈을 감행하던 지배층의 자의성이 무너지고 농민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진전해 근대적 농민층 분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폐정은 여전히 존재했다. 결국 1811년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다. 이후 농민들의 민중운동이 이어졌다. 그리고 1862년 임술농민봉기는 기록에 나타난 것만도 72개 처에 달했다. 비록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이었지만 농민의 일상적·비일상적 체험이나 원망의 집적은 농민의 공유체험으로 자각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농민들의 원래의 목적이었던 지배계층의 경제적 수탈을 제어하려는 농민들 스스로의 자위책이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sup>4)</sup> 이러한 민중 저항의 전통은 갑오농민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주력 세력과 폐정개혁안을 살펴보았을 때 더욱 잘 알 수 있다.

### 1) 주력 세력

갑오농민전쟁의 주력 세력은 소작농과 빈농층과 같은 양인, 농민이 주를 이루었다. 농민군 지도부는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대장 전봉준을 비롯한 손화중,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아래의 표에 나오는 5명의 농민군 최고지도자는 8대조예까지 관료로 진출한 인물을 뚜렷하게 찾을 수 없기에 이들이 몰락양반, 잔반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인, 농민 계층이었다고 판단된다. 전봉준에 관해서는 양반 혹은 중인 출신이라는 기록이 동학과 천도교에 나타나지만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김개남은 빈곤한 집안은 아니면서 지식을 가진 농촌 지식인 계층으로 보인다.<sup>5)</sup>

이름	갑오년 당시 연령	직업	농민군에서의 지위
전봉준	40	농업	총대장
손화중	34	농업	총영관
김개남	40	농업	총영관
김덕명	50	농업	총참모
최경선	36	농업	영술장

4) 김정의, 2007, 「19세기 한국민중운동사의 위상」, 『역사와실학』 32, 역사실학회, pp.720~727.

5)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 『한국사연구』 50~51, 한국사연구회, pp.226~229.

소작농들은 농민군 병사의 주체 세력이었다. 19세기 초 정약용은 호남지방 농촌 사회의 계급구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이 때 호남의 백성을 대략 100호로 잡는다면 소작료를 받는 자는 5호이고 자기의 토지를 자작하는 자가 25호이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70호라고 설명하였다. 정약용의 추산대로라면 이미 19세기에 호남지방에서 약 70퍼센트 가량이 소작농으로 살고 있었다. 갑오농민전쟁이 발생한 1894년의 호남지방 농촌사회의 계급 구성에 대한 통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약용의 추산을 토대로 이 시기 역시도 70퍼센트가 넘는 이들이 소작농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906년~1909년 대한제국과 일제 통감부가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지방에서 논에 있어서 자작농이 15.3퍼센트, 소작농이 84.7퍼센트라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소작농들은 1년간 경제생활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다. 또한 전라북도 전주 지방에서 가장 적자 폭이 컸기에 소작농들은 대부분 빈농이었다. 이러한 소작농, 빈농들은 농민군 병사의 다수를 차지하였다.<sup>7)</sup>

이외에도 아전, 군교와 같은 중인 계층들도 일부 가담을 하지만 그들은 매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농민군이 우세 할 때에는 농민군에 가담하고 관군이 우세 할 경우에는 관군에 가담한 특징을 보인다. 서리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중인 계층은 동학의 접주로 활동하며 농민군에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고부민란의 주체 세력에는 소작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계층뿐만 아니라 부농도 참여하였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기에 부농도 소작농과 더불어 참여하였다.<sup>8)</sup> 하지만 전체적인 농민 전쟁에서의 부농의 참여는 일어나지 않았다.<sup>9)</sup>

## 2) 폐정개혁안

동학군은 직접적으로 폐정개혁을 요구한다. 그 중 전봉준이 고부에서 기포한 이래로 문헌상 또는 형식상의 종류는 9개 조목, 13개 조목, 14개 조목, 24개 조목, 27개 조목이 있다.<sup>10)</sup>

6) 신용하, 위의 논문, p.227.

7) 신용하, 위의 논문, pp.239-243.

8) 신용하, 위의 논문, pp.255-258.

9) 신용하, 위의 논문, pp.251-252.

10) 김진윤, 2001, 앞의 논문, p.149.

분야 종류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합계
			전정	군정	환정	상업		
사안	개	7	9	4	2	7	5	34
	%	20.59	26.47	11.77	5.88	20.59	14.70	100
조목	개	17	18	7	6	17	9	74
	%	22.97	24.32	9.46	8.10	22.97	12.16	100
합계	개	7/17	22/48				5/9	34/74
	%	20.59/ 22.97	64.71/64.86				14.71/ 12.17	100

11)

위의 표는 폐정개혁안의 5개 종류 74개 조목 가운데 용어의 표현상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같은 내용은 ‘동일사안’으로 분류한 후, 각 조목의 요구사항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관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폐정을 개혁하려는 정치적 측면인 ‘정치개혁’, 일차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측면인 ‘경제개혁’,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개혁의 사회적 측면인 ‘사회개혁’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비중을 나누면 경제분야가 사안별로 64.71%, 조목별로 64.86%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분야와 사회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견상 당시의 백성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 미치는 구체적인 고통은 대부분 ‘세금’의 문제이다. 즉 정치분야에서 2개 사안-3개 조목으로 나타나는 매관매직과 대원군의 복귀를 제외한 모든 사안과 조목은 탐관오리들의 경제적 수탈에서 발생하는 폐정이고, 경제분야에서 삼정부문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세금이며, 상업부문도 외국상인과 보부상에 의한 경제적 침탈과 유통질서 문란, 각종 잡세에 의한 관리들의 경제적 수탈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분야에서 1개 사안 1개 조목인 동학교도의 신원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경제적 수탈과 억압에서 발생하는 폐정이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34개 사안-74개 조목 가운데 3개 사안-4개 조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실질적으로 경제분야에서 나타나는 폐정의 개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안별로는 31개 사안의 91.18%, 조목별로는 70개 조목의 94.59%가 경제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민군의 대부분이 양인,

11) 김진윤, 2001, 앞의 논문, p.179.

조(租)·용(傭)·조(調)의 의무, 즉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가진 평민이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보은집회 무렵의 동학 대접주들의 출신을 살펴봐도 사회신분의 구성을 보면 대접주 23명 중에서 양인출신이 19명(82.6%), 중인출신이 2명(8.7%)이며, 양반과 천민이 각각 1명(4.3%)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폐정개혁안에 조·용·조의 남징(濫懲)을 폐지하고 개혁하려는 조목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에서 동학의 역할은 여타의 민중운동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동학의 사상과 조직은 갑오농민전쟁이 단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그 규모도 조직적으로 커지게 만들었다. 1860년대 민중운동이 우리나라 근대변혁기에서 반외세·반봉건 민중항쟁이라는 틀을 가지게 된 것은 갑오농민전쟁부터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삼남지방 특히 전라도에서 시작돼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라도는 조선의 곡창으로서 농민의 계층분화가 다른 곳에 비해 보다 진전되어 있었고, 쌀의 유출을 노린 외국의 상품경제도 일찍이 침투해 있었다. 이 외국상품경제의 침투가 상승작용을 하는 가운데 관리들의 극심한 가렴주구가 자행되는 등 봉건적 모순이 특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의 민족주의, 평등주의적 사상은 변혁적 민중의식을 형성해주었다.<sup>13)</sup> 또한 동학의 접·포 조직은 농민들의 조직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sup>14)</sup>

#### 1) 사상적 측면

동학의 사상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동학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민족주의적 성격,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한 농민 민주주의적 성격을 들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동학은 그 전까지의 민중운동과는 다르게 양반이 아닌, 농민이 주가 되는 반외세적인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봉건적인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운동이 나타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 살펴보자면 동학의 민족주의와 반외세 반침략 사상이 농민들의 마음을

12) 김진윤, 2001, 앞의 논문, pp.179~180.

13) 김정익, 2007, 앞의 논문, pp.727~728.

14) 신용하, 1992,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의 결합」, 『한국학보』 18(2), 일지사, pp.105~107.

15) 신용하, 1992, 위의 논문, p.80.

사로잡은 걸 확인할 수 있다. 동학은 창도될 때부터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보)국안민의 서」의 하나로서 창도되어 민족주의적 의식에 충만한 사상이었다. 동학이라는 명칭의 등은 동양의 의미 이외에 동국(조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학에 대결하여 명칭부터 동국(조선)의 천도학이라는 민족주의적 명칭을 가진 것이었다. 또한 위정척사파와 다르게 당시 청국에 대해 병자호란 때의 침략과 삼전도의 굴욕을 상기하면서 반청의식을 드러냈다. 순망치한에서 조선을 이빨, 중국을 입술에 비유해 조선중심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개항 후 재침략이 자행되고 시작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강렬한 민족주의적 반일의식과 반침략 사상을 보이고 있다.<sup>16)</sup>

둘째로, 동학의 독특한 이론구조의 평등사상이 하위 신분층의 농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동학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씩 모시고 있다. 따라서 최제우는 지별(양반문벌)을 갖고 군자에 비유하는 양반 신분들의 주장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 것을 설교하였다. 그리고 인시천이라 하여 인간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니 당시 양반관료들로부터 차별받고 학대받으며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양인신분층과 천인신분층의 농민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또한 후천개벽 후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는 빈천자인 백성이 부귀자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동학이 천명에 따라 완전히 후천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 농민들을 지상신선과 군자로 만들고 국태민안과 태평성세를 가져올 것이라는 후천개벽 사상의 부분을 농민들이 열렬히 환영했다.<sup>17)</sup>

## 2) 조직적 측면

동학 교단의 조직은 1862년 최제우에 의해 접주제도가 채택되어 실시되었다. 그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갑오농민전쟁 1년 전인 1893년까지에는 최시형의 주도하에 대도소(북접대도주), 포(대접주), 접(접주)로 내려오는 조직 지휘 체계를 정립했으며, 각 접 안에 기능적으로 분화된 육임제도(교장·교수·도집·집강·대정·중정)를 확립하였다.<sup>18)</sup>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직 단위는 포이다. 접은 대체로 군·현 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의 조직으로서 행정단위로서의 군·현의 범위와 일치(또는 그 이내)했던 데 비하여, 포는 그 산하에 몇 개의 접들을 포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가피

16) 신용하, 1992, 위의 논문, pp.80~84.

17) 신용하, 1992, 위의 논문, pp.84~92.

18) 『천도교회사초고』, 전계자료집, 제1권, p.430 및 pp. 453~454 참조 ; 신용하, 1992, 위의 논문, p.106.

하게 몇 개의 군·현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포(대접주)의 조직이 민란과 결합될 때에는 종래의 대부분의 민란의 범위인 군·현단위의 민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도소가 민란과 결합된다면 전국적 농민전쟁이 일어날 것은 필지의 일이지만, 대도소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몇 개의 포(대접주)가 연합하여 봉기하더라도 도 수준의 대규모 농민전쟁으로 봉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sup>19)</sup>

특히 동학이 1892~93년에 개최했던 집회는 동학의 조직이 민란과 결합되는 경우 대규모 농민전쟁이 봉기하게 될 가능성을 검증해 주었다. 충청도 각 접의 접주·교도들이 모인 1892년의 공주집회와, 전라도 각 접의 접주·교도들이 모인 삼례집회는 각도의 접주들이 연합할 때 도 수준의 운동이 전개됨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1893년 1월의 서울 봉소도소 설치와 2월의 상경복합상소는 전국 수준 운동에 대한 하나의 조직적 훈련을 시켜준 셈이 되었다. 특히 1893년 3월의 보은집회는 이듬해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바로 전주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남접과 북접이라는 칭호가 생긴 것은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부터이다.<sup>21)</sup> 고부 봉기 이후, 동학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남북접이라 하여 혁명운동에 가담한 전라도를 남접이라 했고 혁명운동에 반대한 충청도를 북접이라 했다. 이것은 종문을 달리하는 의미의 남북접이 아니라 혁명운동의 찬반을 기준으로 편의상 붙여진 호칭이다. 오지영이 “전라도에도 북접파가 있으며 충청도에도 남접파가 있다”고 했듯이 동학혁명 초기에 전라도에도 혁명운동에 가담치 않은 포가 있었으며, 충청도에도 혁명운동에 가담한 포가 많았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지역을 갈라 남접, 북접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붙여진 호칭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 4. 전봉준 고택지

19) 신용하, 1992, 위의 논문, pp.105~107.

20) 신용하, 1992, 위의 논문, pp.107~108.

21) 1974년에 나온 『나라사랑』 15집 김의환의 「갑오동학농민항쟁과 남북접문제」 참조 ; 표영삼, 1994, 「接·包組織과 南·北接의 實像」, 『동아시아 문화연구』, 2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164.

22) 표영삼, 1994, 위의 논문, p. 163-165.

종 목	사적 제293호
명 칭	정읍 전봉준 유적 (井邑 全奉準 遺蹟)
수량/면적	817㎡
지정(등록)일	1981.11.28
소 재 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조소1길 20 (장내리)



고택 사진

정읍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에 위치한 고택, 풍수지리상 길지로 꼽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건물은 일명 녹두장군인 전봉준 선생이 동학운동(東學運動)을 일으킬 당시 거주하였던 집이다. 전봉준 선생은 조선왕조(朝鮮王朝) 철종(哲宗) 6년(1855)에 이 지방의 양반 가문에서 출생, 고종(高宗) 27년(1890)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서당(書堂) 훈장(訓長)으로 있었다.

고종 31년(高宗 1894) 갑오 동학(甲午 東學) 혁명(革命) 당시 전봉준(全奉準 1854~1895)이 살았던 오두막집으로 흙담 4칸 집이다. 그런데 서편으로 한 칸을 근래에 붙여 지은 것으로 원래는 방 1칸, 광 1칸, 부엌 1칸으로 당시 우리나라 가난한 농민들이 살았던 전형적인 가옥 형태이다.

이 고택(古宅)은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정읍시에서 1974년에 국비와 군비로 크게 수리한 집이다. 정면 4칸, 측면 1칸의 안채(초가)는 높이 15cm의 잡석의 출대 위에 세워졌다. 일반적으로 부엌은 서쪽에 위치하여 이에 이어서 큰방과 윗방이 배치되는 것인데 이 집은 이 순서를 무시하고 있다. 끝방은 방(房)으로 보다는 살림살이 등을 넣어두는 도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 큰방과 윗방은 장지로 칸막이가 되어 필요한 경우 공간으로 터놓을 수 있으며 천장은 두 가지 다 연동(連動) 천장이다. 그리고 두 방의 전면에는 퇴를 놓았으며 대살문으로 드나드는 끝방 전면에 반쪽에는 짧은 담을 두르고 이곳에 땀나무 등을 두었으나 이것이 본래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부역의 전·후벽에는 널문을 달아 필요한 때에는 잠글 수도 있도록 되었다. 대문의 동편에는 잣간을 겸한 변소(草家)가 있으며 출입문으로는 한 짝의 열매문을 달았다. 주위에는 흙담이며 짚으로 된 이엉을 덮었다.

전봉준의 공초록(供招錄)에는 이 집에 와서 수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촌로(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 이웃 마을 양교리(陽橋里 양간다리)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갑오년(甲午年 1894) 1월에 봉기한 후 안핵사 이용태(按使 李容泰)가 내려와 동학교인이라고 지목되는 사람의 집을 모두 불질러버렸는데 이 때 전봉준의 집도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 동안에 이론(異論)이 있었으나 1974년에 보수(補修)를 하면서 해체(解體)작업을 하는 중에 밝혀진 상량문(上樑文)에 무인(戊寅) 2월 26일(高宗 15年 1878) 세운 것으로 되었으니 어쩌면 전부 타지는 않고 남아 있는 폐옥(廢屋)을 보수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5. 동학혁명모의탑

### 1) 장소

동학혁명모의탑은 지금의 정읍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 위치해있다. 1968년 12월 4일 주산마을 거주민 송기태 씨의 가택에서 동학혁명모의 때 쓰인 사발통문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동학혁명이 시작되었음을 기념하고자 1969년 후손들이 건립한 탑이다.



### 2) 사발통문

동학혁명의 해석에 있어 민란과 혁명이라는 용어상의 차이가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발통문의 존재는 고부에서의 첫 봉기부터 단순한 민란이 아닌 혁명의 모의가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다. 1893년 말 전봉준을 위시한 수뇌부들은 죽산마을에서 봉기를 모의했다. 당시 합의한 4개항의 행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의 목을 벨 것
- 2)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3)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침해한 구실아치를 징치할 것
- 4)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급진적으로 보인다. 통문이란 본디 우측에서부터 참가자의 이름을 써내려가지만 사발통문은 사발을 엮어놓고 그 주위에 둥글게 서명함으로써 주모자가 누구인지까지 비밀로 하며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2개월 후 고부봉기가 발발했다.

전봉준의 아내는 송 씨였고 이곳은 송 씨 집성촌이었다.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이 수세 감면을 청원하러 갔다가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올라 전봉준에게 업혀 이 마을로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그 장소에서 사발통문이 작성된 것이다. 동학혁명모의탑에는 우측의 그림처럼 사발통문의 내용이 새겨져있으며 서명한 사람들의 후손 이름까지 적혀있다.

## <참고문헌>

- 김진운, 2001, 「제4장 甲午東學農民運動의 목표와 방향으로서의 弊政改革案」, 『민족사상』 5(3), 한국민족사상학회
- 김정의, 2001, 「갑오동학민중혁명운동의 위상」,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 김정의, 2007, 「19세기 한국민중운동사의 위상」, 『역사와실학』 32, 역사실학회
- 신용하, 1992,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의 결합」, 『한국학보』 18(2), 일지사
- 표영삼, 1994, 「接·包組織과 南·北接의 實像」, 『동아시아 문화연구』 2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송찬섭, 2009, 「민란과 농민 항쟁」, 『통합인문학연구』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의 변혁 사상」, 『한국학논집』 1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 『한국사연구』, 50-51, 한국사연구회
- 표영삼, 1999, 「접포조직과 남북접」, 『동학연구』 4, 한국동학학회
- 편집부, 1998, 「원색화보:한국 정신문화의 원류를 찾아서2-전봉준 장군의 고택」, 『통일한국』 16(2), 58-61, 평화문제연구소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1, 『전북 1 - 답사여행의 길잡이 1』, 돌베개

## <참고사이트>

문화재청 사이트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3,02930000,35](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3,02930000,35))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http://korean.visitkorea.or.kr/kor/inut/where/where\\_main\\_search.jsp?cid=129514](http://korean.visitkorea.or.kr/kor/inut/where/where_main_search.jsp?cid=129514))

A tall, slender monument with a base and a top section, surrounded by trees and a paved area. The monument is the central focus of the imag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ower part of the image.

**Ⅲ. 제 1, 2차 갑오농민전쟁의 전개과정**

## 1. 고부농민봉기

동학 농민 운동의 시작인 고부 농민 봉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수탈로 인해 발생하였다. 조병갑은 농민들을 동원해 만석보를 만든 후 수세를 강제로 징수하였다. 이에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그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를 계획하였다. 사발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右)와 여(如)히 격문을 사방(四方)에 비전(飛箭)하니 물론이 승비((昇飛)비하얏다. 매일(每日) 난망(亂亡)을 구가(謳歌)하던 민중(民衆)드른 처처(處處)에 모여서 말하되 「넋네 낫서 난이(亂離) 낫서」 「에이 참 잘 되얏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혼 사람 이너며 어대 놔머릿겠노」 하며 기일이 오기곤 기다리더라.

이때에 도인(道人)드른 선후책(先後策)을 토의결정(討議決定)하기 위하야 고부(高阜) 서부면(西部면(面)) 죽산리(竹山理) 송두호가(宋斗浩家)에 도소(道所)를 정하고 매일(每日) 운집(雲集)하야 차례(次序)를 결정(決定)하니 그 결의(決意)된 내용은 좌(左)와 여(女)하다

- 一. 고부성(高阜城)을 격파(擊破)하고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을 효수(梟首)할 스(事).
- 一. 군기창(軍器廠)과 화약고(火藥庫)를 점령할 스(事).
- 一. 군수(郡守)의게 우유(阿諛)하야 인민을 침어(侵魚)혼 담이(貪吏)를 격징(擊懲)할 스(事).
- 一. 전주영(全州營)을 함락(陷落)하고 경스(京師)로 직행할 스(事).“<sup>1)</sup>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은 익산 군수로 발령이 났지만, 부임하지 않은 채 고부에서 머물다 1894년 1월 9일에 유임되었다. 이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화가 난 고부 농민 천여 명이 1월 10일 밤고부 관아를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여 군수 조병갑을 내쫓고 억울한 죄인을 풀어주었다. 또한 무기고의 총기구로 무장을 갖추고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을 돌려주었다. 농민군 일부는 물세 시비의 원흉인 만석보를 헐고, 일부는 백산으로 물러가서 성을 쌓고 지켰다.

전라감사 김문헌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정부는 박원명을 새 고부군수로 임명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화약을 청하였다. 이에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합의하여 동학 농민군은 자진해서 해산하였다.

---

1) 김정호, 2012 「동학, 사발통문(沙鉢通文),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동학학보』 25권 0호(동학학회), 61쪽

## 2. 3월 봉기

그러나 화약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가 도리어 이 사건을 동학도의 반란으로 규정하여 봉기와 관련된 농민들을 동비(東匪)라 칭하며 괴롭혔고, 이에 전봉준은 김개남과 함께 전남 무장의 동학 접주 손화중을 찾아가 다시 봉기하였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무장의 구수리에서 창의문(혁명선언문)을 발표하고, 팔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고부로 향하던 중에 호응하는 고부의 농민들과 합세하여 고부성을 습격하였다. 전봉준은 고부성에서 하루를 지내고, 3월 22일에 백산으로 옮겨서 본거지로 삼고 호남창의대장에 추대되었다. 전봉준 등은 백산에서 전라도 각 지역에 주저하지 말고,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라는 격문을 보내고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격문과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전연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려고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sup>2)</sup>

하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둘, 충·효를 함께 갖추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셋,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 없애고, 성인의 도리를 맑고 깨끗이 한다.

넷,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모두 없애버린다.

기강을 크게 떨치고 명분을 바르게 세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sup>3)</sup>

1894년 4월 7일 전남의 17개 지방을 포함, 전라도 33개 지방에서 모여든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영군의 공격을 황토현에서 격파한다. 이어 전봉준은 곧바로 전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방향을 반대로 돌려 정읍·흥덕·고창·무장을 점령한 후 4월 12일엔 영광을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어 함평을 점령하고 6일을 그곳에 머무르며 서울에서 파견된 흥계훈의 토벌 부대를 유인하였다.

흥계훈의 중앙군은 동학농민군의 뒤를 따라 4월 21일에 영광에 도착, 증원군 800명을 기다렸다. 다음날 4월 22일 흥계훈의 선봉대 300명이 대포 2문과 신무기

2) 박준성, 2003 『‘제폭구민’·‘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 - 1894년 농민전쟁의 ‘무장 창의문’과 ‘백산 격문’-』 『내일을 여는 역사』 12호(선인문화사), 226쪽.

3) 편집부, 『전봉준 자료집』 『나라사랑』 제 15집(외솔회), 143-144쪽.

를 갖고 장성 황룡강에 도착하자, 강 건너 황룡장터에 동학농민군 만여 명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대포를 쏘아 약간의 사상자가 났다. 이에 동학농민군이 반격하니 수적 열세에 밀려 후퇴하면서 선봉장 이학승과 5명의 군졸이 전사, 대포 2문과 양총 100여정 그리고 다수의 탄환을 빼앗았다.

동학농민군은 이어 곧바로 전주성으로 달려가 전주를 점령하였고, 전주가 함락되자 조정은 청에 원군을 요청하여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군도 텐진조약을 이유로 인천에 상륙하여 청군보다 4배나 많은 군대를 서울 부근으로 진입시켰다.

부의 명을 받고 부임한 전라감사 김학진은 청, 일 양군의 철수 명분을 위해 전봉준과 휴전을 서둘렀고,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철수와 폐정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가는 대신 전라도 전 지역에 동학농민군들의 통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이제까지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농민이 원하는 농민 자치를 하기로 했다.

집강소가 제시한 폐정개혁안 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sup>

- 도인과 정부사이의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일반 정치에 협력할 것.
- 탐관오리의 죄목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엄하게 벌할 것.
- 횡포한 부호를 엄하게 벌할 것.
-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벌할 것.
- 노비문서를 태워 버릴 것.
- 일곱 가지 천인대우 받는 사람들을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씌우는 평양립(패랭이)을 없앨 것.
-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가할 것.
- 명목에 없는 잡부금을 모두 폐지할 것.
- 관리채용은 지역을 타파하고 인재위주로 등용할 것.
- 왜와 내통한 자는 엄하게 벌할 것.
- 공공의 채무나 개인의 빚을 모두 폐지할 것.
- 토지는 골고루 분배하여 경작할 것.

집강소는 대체로 동학의 접주로 임명되는 집강을 책임자로 하고 서기, 성찰, 집사, 동몽의 행정요원과 의결기관인 의사원 약간명, 그리고 군사와 보좌관 등이 있어 실제로 지방을 다스렸다.<sup>5)</sup>

4) 폐정개혁안 12조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王賢鐘, 「해방 이후 『동학사』의 비판적 수용과 농민전쟁연구」 『歷史教育』 제133권(역사교육연구회), 159쪽

### 3. 집강소 통치 시기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활동은 고을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고을에서는 집강소 설치가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과감한 폐정개혁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나주 등의 경우는 집강소 설치에 반대하는 향리 등의 세력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sup>6)</sup>

한편 같은 해 6월 21일 일본군이 경북궁을 점령, 친일정권을 세우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된다.

### 4. 9월 재봉기(제 2차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단계인 9월 재봉기는 9월 14일부터 그 해 12월 전봉준이 체포되기까지이다. 전봉준은 삼례를 거점으로 동학농민군을 재조직하여 10월엔 서울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를 토벌하기 위한 경군과 일본군의 연합군대가 세 길로 나누어 내려오기 시작하자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에 대항하는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잇따랐다.

특히 1차 봉기에서 잠잠하던 충청, 강원, 경기, 경상 북부 지방과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북부 지방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고, 최시형의 영향 아래에 있던 동학 상층지도자들도 휘하의 교도들을 이끌고 봉기하여 논산의 전봉준과 합류했다. 이들은 서울로 향하던 중,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이 형성한 저지선을 마주하게 된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1차 대접전이,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2차 우금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두 차례의 큰 싸움에서 절대적인 무기의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학농민군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sup>7)</sup>

결국 동학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반외세의 항쟁은 계속되어 11월 15일경엔 논산 황화대에서, 11월 25일 금구, 원평, 구미란에서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원평 전투를 고비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재기를 기약하며 흩어져 피신하였지만

5) 이상의 전개 과정의 큰 흐름은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1996, 『알기쉬운 전남동학농민혁명』 『전남대학교 출판부』, 15쪽-25쪽을 참고하였음.

6) 韓基斗, 1993 「19世紀 民族宗教運動研究 - 東學·天道教·圓佛敎를 中心으로」 『국사관논총』 49집(국사편찬위원회), 130쪽

7) 韓基斗, 1993 위의 논문, 130-131쪽

관군과 일본군에 대부분 체포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후 봉기의 대열에 참가했던 지도자들과 민중들은 지방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보군과 관군,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잔여 세력들은 다음해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는 1895년 2월 대둔산 전투로, 2월 18일 소년 1명을 제외한 25명의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였다.

## 5. 백산성지

백산성지는 백제 시대 지어져서 백강(白江)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역사적인 곳이나 동학농민운동의 촉진제였던 백산전투의 유적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백산성지는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사적 제409호 백산성으로 승격 지정되어 1998년 9월 17일 지정해제 되었다.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2-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sup>8)</sup> 타원형 평면을 가졌고 산 정상을 둘러싸는 테뫼식 토축산성이다. 외곽의 길이는 약 310m로서 외곽의 안쪽으로 회랑식의 부분은 남쪽에서 너비가 약 9m이고 서북쪽에서는 약 13.5m이다. 동쪽으로는 동진강을 바라보며, 급경사에 암반이 드러나 있다. 동북쪽에 북문터가 있고, 남쪽에도 문터의 흔적이 있다.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의 유적지이다. 그래서 적갈색의 무문토기와 원삼국기의 타날문토기편을 비롯하여 삼국시기의 토기편이 채집된다. 특히 이 지역은 백강(白江) 혹은 백촌강(白村江) 싸움이 일어난 곳으로 비정되고 있다. 백강 싸움은 백제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일본에 가있던 왕자 부여풍(夫餘豊)을 왕으로 모셔 일본 수군과 함께 나.당 연합군에 대항해서 최후의 결전을 하였다는 전쟁이다. 따라서 역사지리상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축성연대는 660~663년 사이로 추정된다. 성의 구조는 외성을 포함해서 4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성은 산 정상에 평탄하게 다듬은 산상대지이다. 제2성은 제 1성 아래에 타원형으로 감았으며, 제3성(중성)은 둘레가 506m이고, 제4성(외성)은 둘레 1,064m로 제 3성의 기저부로부터 약 320m 뺀어 있다. 정상부 남서측에 있는 묘의 묘비에는 '효자 증가선대부이조참판행통훈대부호조좌랑최공지묘'라는 글이 있으며 동 백산성의 동측 기슭과 서측은 채석장 개발로 인해 일부가 훼손되었다.

8) 문화재청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310000,35&ref=naverdc](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310000,35&ref=naverdc)

백산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1차 기병 때 호남창의소가 설치되었다. 산이라 부르기가 어려울 만큼 낮지만 들판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으로 백산에 올라서면 관군이 접근해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당시 농민군이 쌓은 토성의 흔적은 산 중턱에 남아있다.

농민군은 1894년 기병해서 고부를 지나 백산에 집결했다. 당시에 그들이 서면 산이 농민의 흰옷으로 덮이고, 앉으면 죽창이 빼곡해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지도부는 그들을 본격적 군대로 재편성했고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왜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귀(權貴)를 모두 없앤다’ 등 4개 항의 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반 백성과 하급 관리들에게 동참을 권하는 격문을 발표하고서 3월 26일경에 ‘보국안민’이라 적힌 기를 앞세우고 전주로 진군했다. 백산성지는 농민의 흰옷으로 덮였던 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으며 백제시기부터 쌓여진 성이지만 동학농민운동의 불을 붙인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 6. 황토현 전적지

황토현 전적지는 부패한 관리 고부 군수 조병갑에 항거하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1월 14일에 관군과 접전하여 첫 전승을 올렸던 곳이다.

황토현 전투는 1894년 음력 4월 6일부터 7일 새벽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운동의 한 과정이었다. 이 전투는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면서 발생한 고부농민봉기에 의해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중 동학농민군이 승리한 최초의 본격적인 전투라 할 수 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로 그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황토현 전투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는 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토현 전투의 배경과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학의 지도부와 달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동학 내 사회변혁 세력의 주축이었던 서병학의 배신으로 서병학과 서인주가 분열하여 동학내의 사회변혁세력이 분화되었다. 서인주 계통의 전봉준은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위해 전라도 일대로 농민봉기를 확산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발통문이 작성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격문으로 리 격문에서는 후에 고부농민봉기의 창의문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발통문에는 금구집회의 결의사항이 반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벌하고 동학교도들이 고부성을 점령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병갑이 후임 군수가 없다는 이유로 고부 군수로

재부임하자 전봉준은 고부농민봉기가 일으켰다. 하지만 농민봉기는 전봉준의 계획가 달리 농민들이 동요하면서 전라도 일대로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봉준 등 사회개혁세력은 전라도 등지에 연락을 하며 봉기의 확산을 계획한다. 고부농민봉기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전봉준은 1894년 3월 13일 무장으로 이동하여 손화중과 접선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정부군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고 백산으로 이동하여 백산대회를 열어 동학농민운동의 지향점을 밝혔다.<sup>9)</sup>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하여 전봉준의 지휘 하에 제폭구민·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고부 백산에 집결해 있다가 조선 고종 31년(1894년 갑오) 5월 11일(음 4월 7일) 새벽에 인근 고을의 농민군과 함께 이곳에 진을 치고 있던 전주 감영의 관군을 기습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이로부터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높아져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 각 현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었으며, 나아가 전주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

9) 조성운, 2013 「황토현 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ume 77

## <참고문헌>

- 김정호, 2012 「동학, 사발통문(沙鉢通文),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동학학보』 25권 0호(동학학회)
- 박준성, 2003 「‘제폭구민’ ·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 - 1894년 농민전쟁의 ‘무장 창의문’과 ‘백산 격문’-」 『내일을 여는 역사』 12호(선인문화사)
- 편집부, 「전봉준 자료집」 『나라사랑』 제 15집(외솔회)
- 王賢鐘, 「해방 이후 『동학사』의 비판적 수용과 농민전쟁연구」 『歷史教育』 제133권(역사교육연구회)
-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1996, 「알기쉬운 전남동학농민혁명」 『전남대학교출판부』
- 韓基斗, 1993 「19世紀 民族宗教運動研究 - 東學·天道教·圓佛敎를 中心으로」 『국사관논총』 49집(국사편찬위원회)



## IV. 갑오농민전쟁의 의의와 세계의 농민전쟁과의 비교

## 1. 갑오농민전쟁의 의의

조선후기부터 봉건적 수탈과 횡포에 시달린 농민들은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외세의 침탈까지 겪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전개 과정을 통해, 갑오농민전쟁이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결국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농민전쟁은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갑오농민전쟁은 봉건제 타파에 기여했다. 1차 봉기 시, 농민군은 각종 봉건적 모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는 전주화약 이래 존재했던 집강소시기에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에 잘 드러난다. 물론, 그 시기가 짧았고 일본군의 침략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조선 정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집강소 자체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농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sup>1)</sup> 결정적으로, 갑오농민전쟁이 봉건제 타파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갑오개혁 때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부분은 지적이 있다. 농민군들이 봉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정개혁의 조항을 보면, 동학농민군들이 노비문서를 소각한다고 했지만, “칠반천인(七般賤人)의 대우를 개선한다”던가, “불량한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고 하여, 차별적 양반 신분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도 의견이 갈린다. 갑오개혁 당시 폐정개혁 요구가 갑오개혁 시에 상당히 실현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갑오개혁과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한 지도층의 구성과 현실 인식, 개혁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sup>2)</sup> 반론과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오농민전쟁이 봉건제 타파에 기여했다는 점은 의의로서 자주 언급된다.

둘째, 갑오농민전쟁은 근대 민족운동의 효시이다. 이 점 또한, 2차 봉기가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점이다. 단순히, 반봉건적 성격을 갖지 않고,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근대적인 민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봉기 이후에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항일의병운동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갑오농민전쟁 때 참여했던 농민군들이 이후, 의병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것이다. 즉, 갑오농민전쟁은

1) 김광재, 2002 「東學農民運動의 歷史的 意義」 『동학연구』 통권 제11호, 125쪽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론」 30권 - 21세기의 한국사학 : 개화기 II.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반일 의병투쟁의 선구”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으로 이어져, 근대 민족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한편, 갑오 농민 전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전봉준을 들 수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소설로 시작하는 유명한 민요 파랑새가 갑오 농민 전쟁에서 안타깝게 패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기리며 불렀던 노래이니만큼 그 당시 갑오 농민 전쟁에서 전봉준이 차지하던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전봉준은 반외세, 반봉건을 주창한 농민적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역사가들에게 평가 받는다.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고부 군수의 착취에 항거하다가 곤장에 맞아 죽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봉준은 부패한 탐관오리와 권력에 맞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농민 전쟁에 뛰어든다.

처음 전봉준이 농민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탐관오리에 의해 억울하게 수탈당하다 죽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인만큼 그가 주창하는 근대화는 민중적 성격을 지닌, 농민적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라도 무장에서 전봉준이 앞세운 창의문에서 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안으로는 탐약한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이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통해 전봉준이 생각하는 근대화에는 나라의 근본은 민중이고 이 때문에 한 국가의 관리와 왕은 민중을 위하여 한다는 성숙한 민중의식과 봉건적 지배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반봉건적인 의식, 외세를 배척해야한다는 반외세적인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와는 대척되는 근대화를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성수를 필두로 한 지주적 근대화를 들 수 있다. 김성수는 동아일보를 맨 처음 창간하고 현 고려대학교를 창립한 인물로 독립 유공자이면서도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전봉준과 달리 중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의 식민지 경제 정책을 이용해 만석꾼으로 성장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대체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sup>5)</sup> 그렇기에 그가 바라보는 근대화는 전봉준의 근대화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 근대적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조국의 땅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있던 송진우는 조국의 땅으로 돌아갔으나, 그는 일본에 남아 정치 경제학을 수학했다. 그는 송진우의 심정은 이해를 했지만 독립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6)</sup> 후에 신중환

3) 김광재, 2002 앞의 논문, 126쪽

4)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 혁명」, 302-304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5) 이완범, 2009 「김성수의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협력 - '협력적 저항에서 저항적 협력으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통권 58, 6-7쪽

실력양성론자가 되는 그의 모습을 이 때 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일제와의 정면 대결을 피한 채 교육, 기업,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대화’ 된 사회를 지향하였다.<sup>7)</sup>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통해 민족 자본을 키우고 동아일보를 참여하고 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 문화계몽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결국 그의 식민지 시절 근대화를 위한 활동은 교육중심주의, 계몽주의, 신중론으로 집약될 수 있다.<sup>8)</sup> 하지만 이러한 그의 활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조선인의 참정권을 얻어내는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자치론적인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sup>9)</sup> 전봉준의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반외세적 성격의 근대화와 달리 김성수의 근대화는 어느 정도 외부 세계와의 타협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전봉준의 근대화는 투쟁적이고 혁명적인 반면, 김성수의 근대화는 좀 더 신중하고 계몽적인 성격을 가졌다.

\* 갑오농민전쟁의 기본 성격과 그 주체가 농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역사에 기록된 농민운동 및 전쟁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사항을 공유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갑오농민전쟁만의 특수성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각 대륙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인 중국·독일 양국에서 벌어졌던 농민 운동 뿐 만 아니라 반식민 운동의 대표로써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베트남의 농민 운동을 갑오농민전쟁과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 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2. 독일농민전쟁과 갑오농민전쟁



6) 이완범, 2009 위의 논문, 9쪽

7) 이완범, 2009 앞의 논문, 13쪽

8) 이완범, 2009 앞의 논문, 23쪽

9) 이완범, 2009 앞의 논문, 23쪽

독일 농민전쟁은 1524년부터 25년 프랑켄 지방 북쪽에 위치한 튀링겐 지방에서 촉발한 전쟁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투를 말하지만 이 경우 한 국가 내에서 농민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갑오농민전쟁에서 일컫는 전쟁이라는 단어 역시 이에 부합한다.(물론 그 대상은 조선 왕조를 겨누는 것이 아닌 2차 봉기 이후 열강의 간섭에 대항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갑오농민전쟁 발발 해로부터 정확히 37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지만 독일 농민전쟁은 여러모로 갑오농민전쟁과 그 성격과 흐름이 매우 유사하여 비교하기에 특히 용이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전쟁에 주입된 종교의 영향력이다. 갑오농민전쟁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독일 농민전쟁은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전쟁은 모두 종교를 통하여 불공평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지도자와 봉기지도자가 각각 존재하였다. 전자의 경우 ‘최시형’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봉기를 지휘한 ‘전봉준’과 ‘토마스 민처’를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무력 사용 방안에 대하여 이들 지도자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다. 이상주의적 성향을 지닌 복잡 지도부와 현실을 보다 파악하여 항쟁에 힘쓴 남접 지도부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과 비슷하게, 루터는 전쟁 후반기 민처 지도 하 무기를 든 독일의 농민들에 대하여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 농민무리에 대항하여”라는 제목의 거칠고 독설적인 비판의 글을 썼다.<sup>10)</sup> 이들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아 결국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유사하다.

물론 이들이 봉기했던 시간대가 달랐던 만큼 두 전쟁의 진행 방향과 목표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이들이 요구하였던 개혁 방안을 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1) 메밍켄 채택 12개조 요구와 폐정개혁안 12개조 조항 비교

독일 농민전쟁 (메밍켄 채택 12개조 요구)	갑오농민전쟁 (폐정개혁안 12개조 조항)
1. 목사는 성서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성서의 말씀만 가르친다.	1.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숙원을 없애고 공동으로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1)
2. 십일조는 목사의 건전한	2. 탐관오리의 죄상을

10) 김경재, 2001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종교적 영향」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Vol.9-10, 49-52쪽

<p>생활이외에는 쓸 수 없고 공동체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남는 돈은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대신 십일조에서 지불한다.</p>	<p>자세히 조사 처리할 것</p>
<p>3. 자유로운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한다.(1)</p>	<p>3.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할 것</p>
<p>4. 가난한 사람도 들에서 잡은 동식물을 자유롭게 가져야 한다.</p>	<p>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할 것</p>
<p>5. 나무 (떨감)는 자유롭게 가난한 사람도 소유해야 한다.</p>	<p>5.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p>
<p>6.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p>	<p>6.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게 한 평양립(平壤笠)을 폐지할 것(2)</p>
<p>7. 농사지를 땅은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3)</p>	<p>7.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가할 것</p>
<p>8. 농민이 소득이 남을 수 있도록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p>	<p>8. 무명의 잡부금을 일절 폐지할 것(4)</p>
<p>9. 법이나 편견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2)</p>	<p>9. 관리 채용에 있어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p>
<p>10. 공동체의 소유인 목초지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가난한 농민들에게)(3)</p>	<p>10.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할 것</p>
<p>11. 사망세의 부당한 징수는 폐지돼야 한다.(4)</p>	<p>11. 공사채(公私債)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면제할 것(4)</p>
<p>12.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율법이 있으면 폐지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더한다.</p>	<p>12. 토지는 균등하게 분작(分作)하게 할 것(3)</p>

시대를 고려했을 때 갑오농민전쟁 측이 조금 더 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자명하다. (독일농민전쟁 측의 경우 종교적 특색이 더욱 강하며 토지 문제 해결에 대

한 갈망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나아가 이 당시 독일은 아직까지 농노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갑오농민전쟁에서 동학 측이 요구한 사항은 변동하는 시대에 맞추어 진보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표를 통한 정리에서는 특히 공통점을 가지는 조항끼리 ()안의 숫자를 같이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up>11)</sup>

### 3. 태평천국운동과 갑오농민전쟁

중국 청조 말기 발생하였던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부터 1864년, 무려 13년 동안 지속되었던 대규모 봉기이다. 비슷한 시대, 시기에 전개되었던 만큼 그 성격과 배경도 매우 비슷하여 비교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 점에서는 독일 농민전쟁보다도 연관성이 깊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역시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의 반 제국·애국 운동이라는 것이다.

한·중 양국 근대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일대 사건이었다고 평가되는 두 운동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엄청난 호응을 받아 그야말로 전국적인 운동의 물결, 바람을 이루었다. 호응의 배경에는 역시 종교가 한 몫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동학이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하였다면 태평천국운동은 유교와 기독교의 성격이 섞인 ‘배상제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목적은 상제(야훼)의 명령과 가호를 받아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천국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청조 말기 내외적으로 사회 수습이 전혀 되지 못하던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많은 백성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동학이 평등 사상을 외치며 당대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한편 1853년 태평천국 성립 후, 중국농민전쟁사에 있어 첫 번째 법률형식으로 평가받는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라는 혁명 강령을 발표했다. 이로서 정권 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분전을 시행하며, 모든 재화를 몰수하여 성고聖庫에 보관하여 균등하게 분배하며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였다.<sup>12)</sup> 이 모습은 당시 청나라의 통치에서 토지가 없던 농민들의 요구와 이상을 철저하게 반영한 농민 평등주의의 사상의 발현이다.<sup>13)</sup> 또한 여성의 지위를 높여 관리직에 앉히고 평등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등 진보적인 모습을 또한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각각 폐정개혁안 12개조에서 보였던 토지의

11) 이병규, 2014 「동학농민혁명④ 동학농민혁명과 세계의 혁명」 『전북대신문』, 3쪽

12) 장세진, 2009 「태평천국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55쪽

13) 악운봉, 2014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농민운동의 비교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쪽

균등 분배·재혼 허가(여성 인권 향상) 등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 개혁안을 통하여 농민을 중심으로 열광적인 지지세를 볼릴 수 있었고, 여성 역시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을 허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운동이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외세의 메커니즘이 크게 작용하였다. 태평천국운동은 위의 강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토지 문제에 있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는 초기 태평천국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서양 열강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1860년 본격적인 탄압이 이루어지자 태평천국은 닝보 태평군 포대를 철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외국침략자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강서, 철가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대를 사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태평천국은 외국침략자의 선진 무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 번 외국침략자를 격퇴했다.<sup>14)</sup> 갑오농민전쟁의 진행 방향 역시 초기의 단순한 농민 운동의 성격에서 벗어나 청과 일본의 잇따른 침입 이후 본격적으로 반외세 정서를 가지며 열강의 마수로부터 한반도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다만 태평천국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양상을 한 데 놓고 완벽하게 비교해 공통점만을 추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선적으로 태평천국운동의 실패는 청조와 열강 세력의 연합 아래 무릎을 꿇게 한 것 이전에 지도자의 내분과 타락 측면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립 초기 민중에게 희망을 주던 태평천국은 어느새 고혈을 쥐어짜는 청조와 다름없는 상태로 전략한 것이었다. (갑오농민전쟁 이후 천도교의 한 일파인 신교가 친일을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이와는 별개의 일이다.) 또한 서양 문물의 도입 측면에 있어서도 양 측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애초에 기독교주의 사상 아래 시작되었던 태평천국이기에 배울만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지만, 갑오농민전쟁의 동학은 반제국주의 기지 아래 서양에 대한 상호 왕래를 일절 부정, 크게 견제하고자 하였다.<sup>15)</sup> 이 점은 두 집단의 종교의 성격 문제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베트남 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

베트남은 앞서 언급된 독일·중국과는 달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 경험을 받은 국가이다. 그렇기에 양 측의 농민 운동 비교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선교사 탄압을 구실로 야금야금 영토를 침식해오던 프랑스는 마침내 1883년 아르망 조약을 통해(혹은 제1차 뤼(Hué)조약) 베트남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14) 악운봉, 2014 위의 논문, 46쪽

15) 악운봉, 2014 앞의 논문, 41-42쪽

야 만다. 서구식 행정체제가 도입되고 자본의 도입으로 메콩 델타지역이 개간되어 농경지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화교상인을 통한 수탈은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농민들은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여러 반불反佛 운동에 호응하게 되었다.<sup>16)</sup>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근왕운동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왕을 도와 적을 무찌르자'는 외침 아래, 휘(Huế) 이북지역에서는 광찌(Quảng Trị)성의 쯤영단호이(Trương Đình Hội)봉기와 응웬뜨느(Nguyễn Tự Như)봉기, 하띤(Hà Tĩnh)성의 레닌(Lê Ninh)봉기, 판딘퐁(Phan Đình Phùng)봉기 그리고 휘(Huế) 이남지역에서는 광남(Quảng Nam)성의 쩌반즈(Trần Văn Dự)봉기 등 수없이 많은 저항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아 초기 식민지 단계의 베트남 농민 봉기는 원초적으로 수탈에 저항하는 성격에 더해 유교적 봉건 사회(멸망 이전 왕조 시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sup>17)</sup> 여기까지는 갑오농민전쟁의 초기 목표와 그 성격이 유사한데, 어디까지나 동학 농민군의 목적은 개혁이었지 왕조의 전복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서 베트남의 농민 봉기는 더욱 격렬해진다. 특히 30년대의 경제대공황은 베트남의 농민계급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 쌀값은 내려가는데 인두세 등의 세금은 올랐다. 1929년 쌀 50kg이던 인두세가 1930년 100kg이 되었고, 1933년에는 급기야 300kg까지 올라갔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sup>18)</sup> 농민들의 고단함과 분노 속에서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공산당이였다. 이 점에서 타 농민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이전 농민 봉기와는 달리 이제는 이념의 지도하에 규합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베트남 최대 반 식민 농민투쟁의 시기로 평가받는 1930년~31년 사이 베트남 공산당은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1천 5백의 당원, 10만의 지지자를 확보했다. 기세 등등해진 공산당은 안남 예안 지방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켜 '예안 소비에트 정부'를 선포하기에 이른다.<sup>19)</sup> 그러나, 이 투쟁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어 1만 명 이상이 살해되는 참극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 민중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그 후 호치민이 이끈 공산주의 혁

16) 조흥국, 2004 「베트남의 근대화 운동」,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東學農民革命記念館) 전시물 중 일부 발췌

17) 김성범, 2013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1-142쪽

18) 쩌티란아잉, 2010 「식민지 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농민소설 비교」,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1쪽

19) 임영태, 2014 「스토리 세계사 9 : 현대편Ⅱ - 대공황의 시작부터 권위에 저항한 1968년 혁명까지」 『21세기북스』

명으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민 운동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졌고, 갑오농민전쟁의 예와 유사한 상황은 특히 초기에 발생했던 봉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하나, 두 농민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의의는 이들이 모두 외세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 후세에 그 열망을 꾸준히 전달하였다는 것이겠다.

## <참고문헌>

- 조성운, 2013 「황토현 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김광재, 2002 「東學農民運動의 歷史的 意義」 『동학연구』 통권 제11호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론」 30권 - 21세기의 한국사학 : 개화기 II.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 혁명」
- 이완범, 2009 「김성수의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협력 - ‘협력적 저항에서 저항적 협력으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통권
- 김경재, 2001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종교적 영향」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Vol.9·10
- 이병규, 2014 「동학농민혁명④ 동학농민혁명과 세계의 혁명」 『전북대신문』,
- 장세진, 2009 「태평천국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악운봉, 2014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농민운동의 비교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국, 2004 「베트남의 근대화 운동」,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東學農民革命記念館)
- 김성범, 2013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티란아잉, 2010 「식민지 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농민소설 비교」,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태, 2014 「스토리 세계사 9 : 현대편II- 대공황의 시작부터 권위에 저항한 1968년 혁명까지」 『21세기북스』

## <참고사이트>

- 문화재청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310000,35&ref=naverdic](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310000,35&ref=naverdic)
- [네이버 지식백과] 백산성 [白山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050&cid=46656&categoryId=46656>
- [네이버 지식백과] 백산성 (답사여행의 길잡이 1 - 전북, 초판 1994., 개정판 13쇄 2011., 들베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4696&cid=42840&categoryId=42850>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large, multi-story building with a prominent tower, likely a government or institutional structure in Gunsan. The building features a complex roofline with multiple gables and a central tower with a square top. The foreground is a wide, open area, possibly a street or plaza, with a few figures visible in the distance. The overall scene is captured in a historical or archival style.

V. 근대도시 군산

## 1. 군산 개관 및 특징 - 역사



### ▲1915년 군산

군산은 조선시대부터 호남평야의 세곡이 모이는 군산창과 이를 보호하는 군산진이 설치될 정도로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1899년 대한제국은 군산을 개항했고 이를 관리 하는 옥구 감리서를 설치했다. 또한 일본이 독점하지 못하게 각국의 공동 개항지로 설정했으나 일제는 수탈한 자원을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군산을 일본식으로 개발했다. 일본 이주민들은 호남평야에 농장을 설치하고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군산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설정했고 자신들이 살던 일본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일본에서 나무와 자재를 공수해 일본식 전통가옥, 목조 건축물들을 건설했다.

개발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가옥과 묘지는 철거되었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분은 경매되었다. 그 결과 1906년 군산 행정지도에 나온 대로 군산은 전형적인 바둑판식 구획을 갖춘 도시로 바뀌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더욱 많은 일본 이주민이 들어왔다. 1908년에는 일본인 인구가 3060명으로 한국인 인구 1494명을 두 배차이로 앞지르기도 했다. 근대 도시의 기반을 닦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나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보니 한국인 인구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1899년 개항 당시 총인구 588명이었던 군산은 1920년 14000여명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1910년, 1920년대에 군산은 조계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변화가인 혼마찌를 중심으로 관공서가 들어섰으며 은행, 회사 등의 상업지구가 형성되었고 교육시설이 건립되었다. 동남부인 군산역 부근에는 정미업위주의 공업지역이 형성되

었다. 건설 현장 노동자, 미곡 하역을 담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중심지에서 소외되었고 조계지 밖의 둔율동, 개복동 등의 산기슭 근처에 거주했다. 도시 공간은 지배층·피지배층의 거주지에 따라 이중적인 구조로 나뉘게 되었다.

1920년대 초에 근대도시에 필요한 교통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교육기관, 의료시설,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당시 미곡가의 폭락은 미곡수탈의 중요성을 떨어뜨렸고 이를 계기로 수탈 중심의 항구에서 상업항구로 탈바꿈되었다. 그동안 증가했던 인구와 발달한 산업기반은 군산이 소비도시로 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930년대에 소비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으며 더욱 많은 상업 시설과 가옥시설이 건축되었다. 대표적으로 미나카이 백화점이 1934년 군산에 들어섰다.

군산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한일합병 이전에는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을 필두로 한 의병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 상인들을 필두로 옥구군산항민단이 결성되었고 대한협회와 협조해 교육과 산업발전에 힘썼다. 이들의 후원을 받은 금호학교는 1909년 12월 교사와 학생들이 일진회의 한일합방 청원서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할 정도로 대표적인 민족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객주들이 만든 군산항객주상회사는 국채보상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3·1운동은 군산지역에서 5월까지 지속되어 총 21차례 연인원 2만5천명이 넘을 정도로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소외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1920년대에 노동조합을 30여개를 결성했고 군산은 노동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 미곡 수탈의 중심지였던 군산이었기에 농민의 저항은 격렬했다. 대표적으로 1927년에 일어난 옥구농민항쟁이 있다. 가혹한 소작료 수탈에 맞서 항의하던 조합장 장태성이 서수주재소에 구속되자 농민들이 분노하여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장태성을 구출해낸 사건이다.

정리하자면 일제강점기하의 군산은 조선 말기 세곡창고에서 수탈의 중심지로 선정되어 근대도시로 변모했다. 대공황기를 거치며 수탈 중심의 항구에서 자본주의 상업항구로 바뀌면서 근대적인 소비도시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다. 군산은 번영을 누렸으나 그것은 주로 일본 이주민에게 향유되었고 대부분의 소외된 한국인들은 도시의 하층민이 되어 번영에서 배제되었다. 군산은 식민지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제의 수탈에 맞서 민족의식을 키우며 격렬히 저항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1)2)

1)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참조

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http://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gh004](http://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gh004))



▲ 현재의 군산

## 2. 제국주의의 유형 - 군산 개항의 필요성과 동아시아 제국의 건설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94년 일본은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중국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에 있었다. 그렇기에 ‘조일잠정합동조관’에는 경제적 이권의 수탈 뿐 아니라 철도와 전신(電信), 그리고 개항장 등에 대한 조약 또한 포함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은 사실 상 반식민지로 전락하였으며 이후 조선의 여러 도시들은 일본제국의 군사적 전초기지화 작업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온 군산시는 전라도 지역의 주요 개항장인 동시에 국내 최고의 미곡 생산지로서 일제강점 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도시다. 군산은 역사적으로 전라도에서 생산 된 미곡이 집하되던 지역일 뿐 아니라 비옥한 곡창지대를 관통하는 금강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적·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렇기에 군산은 부산, 목포 등에 이어 일제가 바라는 개항장의 요구 조건을 두루 갖춘 항구였던 것이다.

1899년 군산 항이 정식으로 개항을 하면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박차를 가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한 전라도 지역의 물류를 담당하던 곳이 바로 군산과 목포였다. 앞서 개항했던 목포에 이어 1899년에 군산이 개항하자 목포영사관의 분관이 군산에 설치되었다. 당시 군산분관에서 남긴 보고에 의하면 ‘군산항은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대도시로 공업품 산출이 많

아 당국(조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반 잡화의 구매력도 경성 이남의 최강지다. (중략) 미곡 수출은 인천, 목포 등에 비하여 한층 다액(多額)에 이를 것이고 또 본방(일본) 화물의 판로가 가장 유망하다.’ 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로부터 당시 군산지역이 선진공업도시이자 경성이남 지역 중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전라도의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나는 미곡이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반대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화물은 군산으로 모인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적 이점과 함께 공업 선진도시였던 군산을 두고 일본은 동아시아 제국 건설을 위한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개항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이주하여 군산은 더욱 활발한 상공업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1899년 목포영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노동자나 은행 지배인, 무역업자 등 36명에 불과하던 일본인이 1900년 말에는 500명, 1903년에는 122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934년에 이르러서는 만 명에 가까운 일본인이 군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토록 군산에서 일본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초기에 이주해 왔던 일본인은 높은 투자이익을 바탕으로 토지를 반 합법, 반 비합법적으로 사들였고 그 결과로 일본인이 군산 유역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모두 사들이게 되어 지주화한 것이다. 이는 군산항이 개항한 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로 군산은 개항 당시 미곡 수출량이 14천석에 불과하던 것이 1935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200만 석이 넘어갈 정도로 거대한 미곡 창고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제의 군량 조달에 있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 3.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보는 여러 관점

앞서 군산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군산은 일제의 주도 아래 가장 근대적으로 정비된 도시 중 하나였다. 따라서 군산 내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선진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들이다. 우리가 답사 기간 중 군산의 근대 건축물을 만나보기까지 일제가 남긴 근대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처리 방안에 관한 사회적 고민이 있었다.

한국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은 변천해왔다. 이는 근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곧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문예은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일제가 남긴 근대 건축물 등은 우리 민족을 침략했던 일본의 문화이므로 철거하여 청산해야 한다는 ‘민족주의론’과 식민지 시기의 역사 또한 우리나라 역사의 부분으로 인정하고 교훈으로써 보존

해야 한다는 ‘역사주의론’, 그리고 역사주의론과 맥락을 같이 하되 더 나아가 근대 문화유산을 관광화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문화소비론’이 그것이다.<sup>3)</sup>

이어지는 글에서는 문예은의 구분을 토대로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되 이 구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 또한 함께 언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의 담론들 사이 갈등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도시인 군산과 군산 내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 1) 민족주의론

일제 시기의 근대문화유산의 철거를 주장하는 ‘민족주의론’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점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6,70년대 국토 개발이 우선시 되던 시기에 문화재에 대한 관점이 곧 철거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일제 시기 축조된 건축물들은 일제에 주권을 뺏긴 채 근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인정함은 곧 식민지배 하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민족주의론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일제가 남긴 근대문화유산을 철거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굴욕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민족주의론이 가장 권력화 됐던 때는 바로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 문제가 대두되었을 시기였다. 조선총독부청사는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셈이라는 의견이었다.<sup>5)</sup> 조선총독부의 철거는 곧 경복궁의 복원과 연결되는 문제였기에 당시 민족주의론이 힘이 더 실리게 되었고 조선총독부청사는 정부의 주도 아래 철거되었다.

한편, 근대문화유산 철거 주장을 민족주의와 직접 연결 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라키 준은 민족주의자 중에서도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족주의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지적한다.<sup>6)</sup>

### 2)역사주의론

‘역사주의론’은 근대문화유산을 역사의 객관적 산물로 보고 보존해야한다는 관점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주의론자의 주

---

3)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2호, 2011, pp.267-268

4)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pp.11-12

5)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p.11

6) 아라키 준(荒木 潤),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과 근대역사관광루트 구축에 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4, pp.143-144

장이다. 역사주의론자들 사이에서도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 쪽은 식민지 시기의 건축물을 통해 일제의 수탈만 조명할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산업화와 근대화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학계의 '식민지근대화론'과 유사한 맥을 보인다. 다른 한 쪽은 일제시기의 건축물은 식민지 통치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이런 역사적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세에 전하는 교훈의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는 위에서 아라키 준이 지적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인식 모두 사료로서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다.7)

조선총독부청사 건물 철거 이후 민족주의론보다 역사주의론이 더 힘을 갖게 되었다. 우선 근대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세계화 속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진 내외적 배경이 있다.8) 이 속에서 일제 시기 근대 건축물은 새로운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 3) 문화소비론

최근 역사주의론에서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였다. 문예은의 구분 중 '문화소비론'에 해당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문화소비론'은 지역 내의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복원과 관광 및 산업화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건축물의 보존에서 더 나아가 소비와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확장시켜 보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유산이 소비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대문화유산까지 관광의 대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의 상징으로 비추어졌던 근대문화유산은 근대화와 한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문화소비론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편의상 아래 세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소비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일관성 없는 다양한 경험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소비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점을 근거로, 시의 이미지 정체성이 역사와 문화의 상품화로 확립될

7)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2호, 2011, p. 270

8)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2호, 2011, p.271

수 있다고 한다.

② 소비이론과 문화상품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로 기호의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③ 문화소비와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세 가지로 하위항목을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 장소마케팅 관점을 이용해 역사적인 건물의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지역의 역사가 기억되도록 하고, 공간적 소비형태의 다양성을 위해 개발을 하는 것이 있다. 둘째로, 문화유산을 도시의 자산으로 여겨 현대와 옛것이 조화를 이뤄 창조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도시의 가치상승을 추구하는 도시 브랜드화가 이 연구에 속한다.<sup>9)</sup>

군산시 내 근대문화유산의 개발에는 ‘문화소비론’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전히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남아있다. 군산시는 근대 건축물의 보존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빼앗긴 역사에 대한 산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학술적인 조사와 함께 시설적인 측면의 공사, 그리고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필요한데, 이는 예산과 기획,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훈이나 교육적인 효과 이외에도 이윤 창출을 위한 관광 산업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산업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sup>10)</sup>

문화체육관광부는 활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분적인 변화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 건물의 설명이나 안내판 같은 시설물 설치 권장을 통해 역사공간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장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중점에 둔다.<sup>11)</sup>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을 위한 장소로 개발하고자 해 문화소비론의 입장에 가까운 데 반해, 문화재청은 역사적 교훈을 위한 장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두 기관의 차이가 군산의 개발의 문제에서 드러난다.

근대 건축물은 군산의 구도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 지역의 시민들은 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상권을 살아나길 원하지만, 두 부처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복원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혼선이 존재한다.<sup>12)</sup>

---

9)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pp.15-19를 요약

10)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pp.83-84

11)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pp.84-85

12)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pp.85-86

#### 4. 동국사



↑ 일제시대 동국사 전경



↑ 동국사 대웅전 전경

동국사(東國寺)는 1909년에 일본의 승려 내전불관(內田佛觀)이 창건한 조동종(曹洞宗)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다. 군산에는 동국사를 포함해서 6개의 일본인 사찰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 4곳의 사찰은 사라지고 흥천사와 동국사만 남게 되었다. 흥천사는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동국사만이 일제시대 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sup>13)</sup> 동국사는 개항 이후 일본불교가 우리 땅에 정착해가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며, 2003년에 등록문화재 64호로 지정되었다.

일본은 개항 초기부터 한국 침략에 불교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일본 불교를 전도하여 한국 민중이 일본에 반감을 갖지 않고 식민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1877년 일본의 요청에 따라 정토진종 대곡파(淨土眞宗大谷派)가 첫 번째로 한국에서 포교를 개시하였고, 그 뒤로 일연종(日蓮宗)을 비롯한 각종 불교 종파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쟁적으로 포교활동을 하였다. 각 불교 종파들은 한국에 일본사찰, 병원, 포교소를 건립하였는데, 동국사는 1909년 당시 77세였던 내전불관이 군산 일조통(현재의 군산시 금동 구영 1길 근처)에서 금강선사(錦江禪寺)라는 이름으로 포교소를 열면서 시작되었다.<sup>14)</sup>

13) 김중규, 2003, 『군산 답사 여행의 길잡이 : 내 고향 향기를 찾아 떠나는 답사길』, 나인, 214~215쪽.

14) 최혜경, 2004, 『1910년 전후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민족운동』, 동학연구 제17권.

금강선사는 1913년에 현재의 금광동으로 옮겨가며 본당(本堂)과 고리(庫裡)를 새로 지었다. 이 때 건축자재는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본당을 지은 지 2년 후에 내전불관이 생을 마감하였고, 다음 주직(住職)으로는 일본인 승려들이 임명되었다. 일제시기 동국사의 이름은 금강사(錦江寺)였으며, 지금도 동국사 입구의 대문기둥을 살펴보면 금강사라는 옛 명칭과 함께 쇼와 9년(1934)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금강사는 교세가 늘어나 1941년 군산에 세 포교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금강사개복포교소, 금강사해망포교소, 금강사대조포교소이다. 해방 이후 금강사는 대한민국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55년에 전북종무원에서 매입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김남곡 스님이 절의 이름을 동국사로 개명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로 증여했다.<sup>15)</sup>

### 1) 대웅전<sup>16)</sup>

동국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의 정방형으로 이루어진 단층 팔작집이다. 에도시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절인 만큼 우리나라의 절과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 먼저 지붕의 용마루가 일직선으로 되어있어 곡선으로 휘어진 우리나라의 용마루와는 다르다. 본래 용마루에는 치미가 올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용두가 올려져 있다. 처마에는 우리나라 사찰의 처마와는 다르게 단청이나 풍경 같은 장식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대웅전의 지붕은 3/4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고온다습한 일본의 기후로 인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초가지붕을 벗짚이 아닌 억새로 만드는데, 억새는 벗짚에 비해 방수기능이 좋지 않았기에 지붕 경사를 더 급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습한 기후는 또 다른 건축양식상의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위를 견디기 위해 대웅전의 벽을 두껍게 만드는데 비해, 동국사 대웅전은 습기를 견디기 위해 삼면에 미서기창을 설치한 것이다. 동국사 대웅전은 전면에 4짝 미서기문을 달고 나머지 면에는 2짝 미서기창을 달았다.

대웅전의 내부에는 원래 일본식 바닥 깔개인 다다미가 깔려있었다고 하나 한국 전쟁 시기에 인민군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나무 마루가 깔려있다. 대웅전의 천장은 우물 정(井)자 형태의 평천장이며 천장에 용과 각종 조각을 새겨 넣는 우리나라의 사찰과는 다르다. 대웅전 중앙 안쪽에는 석가모니불이 봉안되어 있

---

165~167쪽 ; 송석기, 2012, 『군산 동국사 창건 초기 건축물에 관한 연구 : '寺院創立願' 관련 사료에 나타난 건축물 및 현존 건축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제14권 제1호, 9쪽.

15) 홍승재, 안선호, 김태근, 서지은, 김현용, 2006,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사업 조사보고』, 건축역사연구 제15권 5호, 114~115쪽; 김종규, 앞의 책, 215쪽.

16) 대웅전과 종각 부분은 김종규, 위의 책, 215~217쪽; 홍승재, 안선호, 김태근, 서지은, 김현용, 2006, 위의 논문, 115~125쪽을 주로 참고해서 작성함.

으며, 그 좌우로 작은 불단과 독성, 산신, 지장 등이 그려진 탕화가 있다. 현재의 불상은 해방 이후 금산사 장육전에서 모셔온 것으로, 탕화들도 해방 이후에 동국사로 온 것이다.

대웅전의 오른쪽에는 복도를 통해 요사가 연결되어 있다. 요사는 평면형태가 卍자 형으로 되어있으며 퇴칸으로 몸체를 감쌌다. 이 또한 일본식 건축의 특징이다. 대웅전과 요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찰과는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대웅전을 독립된 예배장소로 두었지만, 일본불교에선 스님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서, 생활공간인 요사와 직장인 대웅전을 연결해 편리함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 2) 종각

종각은 대웅전의 좌측에 위치해 있으며, 화강암으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장대석을 올려 만들었다. 정면 측면 한 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사면의 기둥이 중앙으로 모이게 만들어 충격을 흡수하게 하였다. 이 같은 양식은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에서 주로 쓰는 양식이다. 기단 중앙의 하부에는 울림통 역할을 하는 항아리를 문었다. 종각에 달려 있는 범종은 1919년에 교토에서 주조되었다고 하며, 종을 월명산 아래 금강사에 놓을 것이라는 기록과 함께 종을 주조하는데 시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종각 주위에 둘러놓은 석불들도 일본 사찰의 특징인데, 이는 신도들이 소원을 빌면서 시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 5. 부잔교



군산내항은 금강하구와 중부 서해안 지역에 자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고려 이후 호남지역의 세곡을 저장 운반하는 조운창고가 운영되던 물류유통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해상교통로로서의 역할 때문에 1899년 개항 이후 근대적인 항구로서의 축항 공사가 추진되었다. 이 때 3천 톤급 배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4기의 다리가 만들어져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에 반출하였다.

부잔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썰물 때면 갯벌이 드러나 배의 접안이 어려운 서해안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건조한 인공구조물이다. 기본형태는 바닷물의 수위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다리와 다리에 연결된 콘크리트 함선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썰물 때면 콘크리트 함선이 접안시설로 이용되는 형태이다.

1926년~1932년 사이에 진행된 제3차 축항 공사를 통해 3기가 추가 설치되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 총독이 1926년 기공식에 참석할 만큼 제3차 축항 공사는 군산을 통해 미곡 수탈을 확대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제3차 축항 공사에서 완공된 부잔교를 통해 썰물 때에도 3천 톤급 기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었다. 또한, 1936년~1938년 사이에 진행된 제4차 축항 공사에서 부잔교 1기를 추가 설치하여 3천 톤급 기선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축항 공사로 설치된 구조물들은 부분적으로 멸실되었고, 현재는 제 3차 축항 공사 과정에서 설치되었던 부잔교 3기의 일부가 현존하고 있다.

당시 수덕산 토석 채취공사에 참여한 지역민에 의하면 하루 임금이 80전으로 다른 일에 비하여 샅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공사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이며 완성된 대형 부잔교의 입수식 때 사고가 나서 한국인 노동자 1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증언한다.

## 6. 꾀보선창

꾀보선창은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동에 소재한 선창이다. ‘꾀보’는 ‘언청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며, ‘선창’은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으로, ‘부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풀이하면 언청이 모양을 한시의 부두라는 뜻이다. 시의 온금동 앞쪽에 배를 댈 수 있는 조그마한 만(灣)이 있었는데 이곳에 부두시설을 설치하면서 삼면을 막고 한 면만을 열어놓아서 언청이 모양을 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꾀보 선창의 본래 명칭은 죽성 포구인데, 조선시대 이곳에 큰 대나무 밭이 있어 마을을 감싸고 있었는데, 대나무 숲이 마치 성(城)과 같아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래서 마을의 이름을 죽성리라고 불렀던 대서 유래한다.

꾀보선창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이기도 하다. 정 주사는 강 건너 서천 땅에서 그의 선재 유산인 선산 한필지에 논 4000평과 집 한 채를 모조리 팔아 빚을 갚고 그의 처 유씨, 딸 초봉과 계봉, 그리고 아들 형주와 함께 똑딱선을 타고 꾀보선창으로 와 정착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가산을 탕진한 정 주사는 꾀보선창으로 나와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 두루마기를 둘러쓰고 풍덩 물로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해 볼까”하고 고민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김중규, 2003, 『군산 답사 여행의 길잡이 : 내 고향 향기를 찾아 떠나는 답사길』, 나인.
- 송석기, 2012, 「군산 동국사 창건 초기 건축물에 관한 연구 : '寺院創立願' 관련 사료에 나타난 건축물 및 현존 건축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논문집 제14권 제1호.
- 최혜경, 2004, 「1910년 전후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민족운동」, 동학연구 제17권.
- 홍승재, 안선호, 김태곤, 서지은, 김현용, 2006,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 사업 조사 보고」, 건축역사연구 제15권 5호.
- 정갑원, 1975, 「港灣荷役 生産力에 關한 研究 : 群山 外航埠頭의 施設 物動 및 勞動을 中心으로 = A Study on Facilities, Cargoes and Stevedores of kunsan Port」, 원광대학교 경영학회

## <참고사이트>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tage/hub/HubApi.do>
- 동국사 <http://www.dongguksa.or.kr/>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3565&cid=40942&categoryId=33691>
-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gunsan&dataType=0201>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87343&cid=51946&categoryId=55073>



## VI.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식민지 지주제

## 1.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담론<sup>1)</sup>

2005년 6월 18일, 히로쓰 가옥은 등록문화재 183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히로쓰 가옥의 문화재 지정과정에 있어서 군산의 다른 일제 하 지어진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담론이 펼쳐졌다. 이러한 담론은 크게 민족주의론, 역사주의론, 문화소비론의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족주의론은 일제 강점기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을 일제 침략의 잔존물로 인식하고 일본의 생활, 문화, 역사를 보여주는 요소들을 모두 철거하여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제시기를 식민지배 아래서 일방적으로 철저히 착취당한 수탈의 시대이고, 이를 벗어나고자 한 독립운동의 시대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입장은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 ‘원시적 수탈론’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자생적인 근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자료적 근거를 제시하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제적인 개항과 근대화에 제동을 걸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역사주의론은 식민지 시기 역시 우리나라 역사의 부분으로 인정해야 하며,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생각은 일제시기를 일본의 수탈과 식민지배라는 억압적인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역사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이 입장은 식민지 시기에 수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산업화가 일어났으며, 그들로 인해 근대화된 도시의 초석을 닦았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맥락이다. 일제시기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 역시 식민지 통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삼고 역사적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지표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소비론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건축물을 복원하고 관광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체성까지 확립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근대 건축물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근대 건축물을 보존, 활용하여 관광·산업화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문화소비론이 대두되었다.

군산시의 경우 민족주의적 입장에 따라 일제시기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한 부잔교 사례, 역사주의적 입장에 따라 구 세관건물을 보존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역사 인식이 공존하며 대립하였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

---

1)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담론은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권 2호를 참고하였다.

입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노력과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근대 건축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군산은 근대문화유산을 문화관광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문화소비론’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군산에 남아있는 식민지시대의 근대 문화유산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를 상징화해서 군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군산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근대 건물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 군산세관, 구 조선은행 등 여러 근대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시기 민족을 수탈했던 일본인 지주의 가옥과 농장 등 수탈의 상징들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애환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일본의 잔재가 역사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반론을 펼치며 맞섰다.(역사건축학회)

현재, 군산에서는 문화소비론이 우세하며 이에 따라 민족주의적 관점이 사그라지고, 역사적 교육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역사 문화 관광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화소비론의 관점이 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근대시설의 복원사업 및 문화재 지정은 일본이 일제시기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일본인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번영을 이룩시켰다는 왜곡된 생각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소극적 민족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이 나오는 만큼, 세 가지 담론이 때에 따라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2. 군산지역의 식민지 지주제

조선시대 군산은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세곡이 모이는 군산창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산진이 설치되어 경제, 군사적 요충지로 중시되어 왔다.<sup>2)</sup> 전통적으로 전북지역은 대표적인 쌀 생산지대로서 조선 왕조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였다. 전남과 더불어 조선왕조시기에 가장 많은 조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일제가 한국의 토지와 곡물 특히 쌀에 대한 지배욕을 강화시킴에 있어서 전북지역이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고 전북 지역의 곡물을 일본으로 이출시킴과 동시에 일본자본과 일본인이 한국 농촌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군산항의 개항 이후에는 곡물 수출이 주로 이곳에서 행해졌다. 이는 군산 주재 일본영사관 分館의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북에서 일본인거류지(日本人居留地)였던 군산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에서 이러한 토지잠매(土地潛買)가 나타나고 있었다.<sup>3)</sup>

2) 문화재청, www.cha.go.kr, <수탈의 역사 서린 군산 근대역사를 찾아 2>, 이영춘 가옥.

1899년 5월 1일 군산항의 개항과 더불어 해안일대에 조계지를 설치하고, 개항장을 관리하는 옥구감리서를 두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조계지가 원형으로 확장되면서 본정통(本町通<sup>4)</sup>)을 중심으로 관공서 및 은행, 회사 등이 들어선 상업, 업무지구와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거나 군산항에서 운반되어온 쌀의 하역작업을 하는 조선인들의 거주지는 조계지 밖의 둔율동, 개복동 등의 산기슭이었다. 때문에 군산 시가지는 지배와 피지배, 개발과 소외라는 이중성을 가지며 확대되었다.<sup>5)</sup> 일본인들이 군산항을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 말경으로, 일본의 이민법(移民法)이 개정되어 한국으로 자유도한(自由渡韓)이 가능해져 일본인 이주자들이 점차 증대하기 시작했다. <sup>6)</sup> 1910년 강점 이후 일제의 정책이 강화되며 일본인 가족단위의 영구거주가 많아졌으며 농장을 운영하는 지주들의 이주도 증가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에 따라 미곡 수탈량이 이전보다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커다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sup>7)</sup> 일본 이주자들은 1904년에 이미 군산농사조합(群山農事組合)을 창립하고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자하는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 거류민단(居留民團)을 조직하고 있었다.<sup>8)</sup> 1930년대에는 군산부의 토지 중에서 80%가 일인의 소유, 옥구 지방의 경우는 농경지의 60%가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다. 전북지역에는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매매와 저당이 자유로운 농민의 물권적 권리인 화리권(禾利權)이 있었는데 이는 어떤 배경에서든지 경작 농민이 일정한 노동력과 금전을 치르고 획득한 권리였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였다. 그런데 한말에 이르러서는 점점 부인되게 되었다. 일본인이 토지매수 시에 화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완전한 권리로 성장하지 못한 화리권을 소멸시켜 지주권 강화를 꾀하였다.<sup>9)</sup> 일본인 농장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조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었고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군산은 도시 면적비율로 보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정미공장의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은 일본인 자본가나 관리자의 폭력과 수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3)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 한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2, 18-19쪽.

4) 일본어 혼마찌(本町)라고도 불린다. (문화재청, www.cha.go.kr.)

5) 문화재청, www.cha.go.kr, <수탈의 역사 서린 군산 근대역사를 찾아 2>, 이영춘 가옥.

6)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 한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2, 19쪽.

7) 문화재청, www.cha.go.kr, <수탈의 역사 서린 군산 근대역사를 찾아 2>, 이영춘 가옥.

8)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 한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2, 19쪽.

9) 박명규, 1986. 『위 논문』. 40쪽.

### 3. 군산 신흥동 가옥(구 히로쓰 가옥)



#### ▲ 히로쓰 가옥 내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 가옥)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살았던 2층의 전통 일본식 목조가옥이다.<sup>10)</sup> 이 가택의 주인이었던 히로쓰는 당시 식민지 지주제가 성행하던 상황에서 드물게 포목 상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군산 임피면 인근에 조그마한 농장을 운영하며 부협의회 의원을 지냈다.<sup>11)</sup> 그는 군산의 다른 부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옥은 순위에 드는 저택으로 지어놓았다.<sup>12)</sup>

건물의 형태는 근세 일본 무가의 고급주택인 야시키 양식을 띠고 있으며,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여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sup>13)</sup> 지붕은 박공지붕<sup>14)</sup>과 합각지붕<sup>15)</sup>에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으며, 자연석을 깬 기단 뒤에 방형 초석이 놓이고 그 위에 가느다란 사각기둥이 세워져 지붕가구가 짜여진 방식이다.<sup>16)</sup> 2층의 본체 옆에 단층의 객실이 비스듬하게 붙어 있

10) 군산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4001002000&dataSid=172](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4001002000&dataSid=172), 2015.10.02.

11) 위의 사이트.

12) 위의 사이트.

13) 위의 사이트.

14)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 형태를 가진다. 경사진 지붕의 양쪽 끝부분에서 지붕면과 벽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 단면의 모서리를 박공이라고 하고, 지붕의 양측면에 있는 삼각형 벽을 박공벽이라고 부른다. - 다음(daum) 백과사전.

15) 지붕 위에 가치 박공이 달린 삼각형의 벽이 있는 지붕. 팔작지붕. 처마끝은 모임지붕처럼 되고 용마루 부분에 삼각형의 벽을 만든 지붕. - 문화콘텐츠닷컴 용어사전.

16) 군산문화관광홈페이지.

으며 두 건물 사이에는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다. 현관 안쪽의 중복도 양편에 온돌방과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이 배열되어 있고 온돌방 여에는 외부에 면한 복도가 있는데 중간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sup>17)</sup> 복도의 끝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한쪽은 객실로, 또 한쪽은 문체의 부엌 쪽으로 연결된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2칸이 있는데 오시이레<sup>18)</sup>와 도쿄노마<sup>19)</sup>가 설치되었으며 전면에는 복도가 있다.<sup>20)</sup> 객실 부분에는 온돌방과 일식 다다미방, 화장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전면과 측면에는 편보도가 연결되어 있다.<sup>21)</sup>

해방 후 이 집은 구)호남제분 이용구 사장 명의로 넘어갔으며 현재까지 한국제분의 소유로 되어 있다. 건물의 외형적 특징 덕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자주 섭외되었는데, ‘장군의 아들’, ‘타짜’,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등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되었다.

#### 4. 이영춘 가옥

##### 1) 구마모토 리헤이와 가옥

일제강점기, 전북 최대 농장주로 군산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였던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에 의해 1920년대에 건립되었다. 주로 일본의 동경과 경성에 거주하던 구마모토가 봄철과 추수기인 가을철 등 일년에 두세 차례 농장을 방문할 때 임시거처로 이용하는 별장이었다. 구마모토는 일본 나가사키(長崎) 출신으로 게이오 대학 이재과에 재학 중이던 23살에 조선에 건너왔다. 당시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민들에게 해외진출을 권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 조선으로 여행을 왔다가 군산의 넓은 농토와 만경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고 대규모 농장 개설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구마모토 리헤이는 군산 개정에 농장을 개설하여 1903년 5백 정보의 논을 매입하기 시작, 1932년이 되자 농장소유의 논만 3천 5백 정보(1천여 만평)로 여의

---

[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4001002000&dataSid=235804](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4001002000&dataSid=235804) , 2015.10.02.

17) 위의 사이트.

18) 일본식 벽장. - 네이버(naver) 일본어사전.

19) 일본식 방의 상좌(上座)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벽에는 족자를 걸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물을 꾸며 놓음; 보통 객실에 꾸밈). - 네이버 일본어사전.

20) 군산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4001002000&dataSid=235804](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4001002000&dataSid=235804) , 2015.10.02.

21) 위의 사이트.

도(75만평)의 10배가 넘었다. 농장의 범위는 개정을 중심으로 옥구, 미면, 정읍, 화호 등 1부(시) 5군 26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다. 이 농장에 소속된 소작인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총 3천 세대 2만 여명에 달하였다.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고 농사지도를 전담하는 사업부를 포함한 회계업무의 경리부, 소작인을 진료하는 진료부의 관리직원만 해도 49명이 넘었다.<sup>22)</sup> 구마모토는 기업형 농장경영을 통해 최대한의 이윤을 낼 목적으로 소들을 돌볼 수의사를 두기도 했는데 최초에는 농장의 수의사들에게 소작농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에 구마모토가 진료부를 설계하고 조선인 의사를 초빙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쌍천(雙泉) 이영춘(李永春) 박사이었다. 이는 농장일꾼들의 건강이 곧 생산력 증대로 이어져 자신의 부를 키워줄 것이라는 구마모토의 계산도 포함되어 있었다.<sup>23)</sup> 이영춘 박사는 이곳의 진료소로 사용되었던 자혜의원에 1935년부터 원장으로 부임해 수많은 소작농들의 치료를 했다.<sup>24)</sup> 해방 이후 구마모토 리헤이가 일본으로 돌아가자 농장의 땅은 신한공사로 넘어가고 농장의 진료소였던 자혜의원은 쌍천 이영춘 박사의 노력으로 개정병원으로 발전하였다.<sup>25)</sup>

## 2) 이영춘 박사와 가옥

쌍천 이영춘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데 호인 쌍천(雙泉)은 두 가닥의 샘물 즉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샘물과 영혼을 치유하는 샘물이라는 뜻이다. 1903년 10월 16일 평남(平南) 용강(龍岡)군에서 태어난 박사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2년 후에 평양고보(平壤高普)에 진학하게 된다. 평양고보에서 5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 경북 대구(大邱)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5년 4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평양고보 사범과 시절 담임선생이던 경성제대 와타나베(渡辺) 교수의 소개로 전북 개정의 구마모토 농장에 소속된 2만여 명 소작농 가족을 돌보기 위해 1935년 4월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혜의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다.<sup>26)</sup>

농장의 소득배분은 농장 4, 농민 6의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비료대금, 영농자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농민들로서는 극심한 가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다른 농장에 비해 소작료가 비싼 편이었던 구마모토 농장은 풍흉에 관계없이 완납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거나 소작지를 몰수당해야 했다.<sup>27)</sup> 이러한 가난으로 수많은 농민

22) 김중규, 2007,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 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문화체육과, 38-39쪽.

23) 문화재청, www.cha.go.kr, <수탈의 역사 서린 군산 근대역사를 찾아 2>, 이영춘 가옥.

24) 군산문화관광, www.tour.gunsan.go.kr, 이영춘 가옥.

25) 김중규, 2007,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 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문화체육과, 40쪽.

26) 군산 문화원, http://gunsan.kccf.or.kr, 이영춘 박사.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호남 대부분의 농촌은 갯벌을 간척한 것으로 우물을 파도 짠물이 나와 식수난을 겪었기 때문에 농업용수인 냇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여 만경(萬頃)강, 동진(東津)강, 금(錦)강 유역 어디에서나 ‘디스토마’균에 걸린 농민이 수없이 많았다.<sup>28)</sup>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영춘 박사는 의료활동을 끊임 없이 이어간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호교사제와 의료보험조합을 실시하였다.<sup>29)</sup> 건물은 일제의 토지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해방 후 주인이었던 이영춘 박사의 지역 의료 활동에 끼친 역사적 비중을 볼 때 가치가 있다.<sup>30)</sup>

### 3) 가옥의 구조와 특징



◀ 이영춘 가옥

대지면적 934㎡, 연면적 77.39㎡, 건축면적 77.39㎡의 규모를 가진 지상 1층 높이의 목조 건축물. 현재 군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존이 잘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저와 비슷한 건축비를 들여 만들어졌다는 구전이 전하는 호화로운 건물이다. 프랑스인이 설계하고 일본인이 감독, 한국인이 시공하여 서구식과 일식, 한식 양식 건축의 특징이 절충·혼합된 형태다. 상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장식과 거실 북측면에 설치된 서양식 벽난로 등 현관과 응접실에서는 서양식이 사용되었고 안방은 일식, 관리인 숙소는 온돌방이 사용된 한식이다. 외부형태에 있어서는 유럽의 주거형식을 따라 요철이 많은 평면구성이다.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에 천연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였고 거실바닥에는 티크목 쪽매널이 깔려있다. 내부기둥과 안방 사이 심벽은 회로 마감되었는데 미서기창 등

27) 김중규, 2007,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 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문화체육과, 40쪽.

28) 군산 문화원, <http://gunsan.kccf.or.kr>, 이영춘 박사.

29) 군산문화관광, [www.tour.gunsan.go.kr](http://www.tour.gunsan.go.kr), 이영춘 가옥.

30)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 이영춘 가옥.

에서 일식 건축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31) 이영춘 박사가 사용하면서 일식의 다다미방을 온돌방으로 개조하였으며, 외관의 구조를 포함한 전체적인 주거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32)

## 5. 시마타니 금고

### 1) 시마타니 금고의 건설과 이용

정식 명칭은 ‘군산 개정면 구 일본인 농장 창고(群山 開井面 舊日本人農場倉庫)’로 일제 강점기 발산면 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였던 일본인 지주 시마타니 야소야(嶋谷八十八)가 1920년대에 지은 금고용 건물이다. 이 금고는 대지면적 18,043㎡, 연면적 120.15㎡, 건축면적 49.77㎡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다. 입구에는 철제 금고문이 달려 있고, 창문은 쇠창살과 철판으로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농장의 각종 서류 및 현금, 한국에서 수집한 고미술품 등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 발산초등학교 뒷마당에 위치하고 있다.33) 현재의 발산초등학교 자리에 농장을 만들었던 시마타니 야소야는 일본의 야마구찌현 구카군 출신으로 일본에서 주조업으로 재산을 모은 후 일본 청주의 원료인 값싼 쌀을 찾아 군산에 온 자이다. 1903년 12월, 당시 돈 7만원으로 발산리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장을 만들기 시작하여 1909년이 되자 임피면 이외에도 2개의 면에 486정보의 농지를 소유한 농장주가 되었다.



당시 구라(倉)라고 불리던 형태의 이 금고는 전체가 호두알만한 강자갈을 섞어 만든 콘크리트 건물이다. 1층에서 3층까지 하나의 구조물인 일체형으로 만들고 내

당시 구라(倉)라고 불리던 형태의 이 금고는 전체가 호두알만한 강자갈을 섞어 만든 콘크리트 건물이다. 1층에서 3층까지 하나의 구조물인 일체형으로 만들고 내

31) 김중규, 2007,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 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문화체육과, 40-41쪽.

32)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 이영춘 가옥.

33) 군산문화관광, “등록문화재182호. 일본인 농장창고”

([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2005002000&orderBy=REGISTER\\_DATE:DESC&startPage=1&dataSid=173](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2005002000&orderBy=REGISTER_DATE:DESC&startPage=1&dataSid=173)).

부의 각층은 나무마루로 구분했다. 외부로 통하는 창문에는 쇠창살을 치고 그 바깥 쪽으로 철문을 달아 2중으로 방범장치가 되어 있다. 또한 출입문에는 육중한 미제 금고 문이 달려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6·25 전쟁 중에는 이 건물이 인민군에 의해 군산 옥구 지방 우익 인사들을 감금하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정면 출입구 부분의 박공지붕과 출입 통로는 오래 전에 철거되었고 해방 이후 증축되었던 부속 창고는 최근 철거되었다. 군산에는 시마타니 농장 금고 외에도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의 부속 건물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남아있다.

시마타니 금고의 용도는 반지하에는 옷감과 음식류, 2층에는 농장의 중요 서류와 현금이 있었고, 3층에는 한국의 고미술품이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 골동품들은 해방 후 미군정청에 보낸 박물관 관계자들이 군용트럭을 몰고 와 실어 갔다고 하는데, 당시 수많은 보물급 예술품들이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sup>34)</sup> 시마타니는 자신의 저택 정원 장식을 위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많이 수집 약탈하였고 현재도 그 유물들이 발산 초등학교 후원에 남아있다. 보물 제234호인 용무늬 간주석이 특징인 석등과 보물 276호인 고려시대 5층 석탑 그리고 6각 정자형 부도라는 특이한 형태의 부도 등 농장주 시마타니에 의해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에서 옮겨진 석조 유물들 중 총 31기의 유물이 남아 있다.<sup>35)</sup>

## 2) 일제 강점기의 경제·문화적 약탈

### (1) 경제적 착취

시마타니 야소야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듯, 일본은 이미 1910년 이전부터 군산 항을 거류초계지역으로 삼아 군산지역의 토지를 불법, 탈법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군산을 식민지 토지수탈의 거점지역으로 삼고자 했던 것인데, 이는 군산지역이 일제 식민지 경제착취를 위한 토지수탈의 거점이 된 것은 자연적인 천혜의 요지로서 북쪽으로는 금강,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하구사이에 끼여 있는 연해 지역으로서 농수산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거류지를 통한 일제의 토지점유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점차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후 일본 본토에서의 쌀 폭동과 1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인한 무역 축소와 식량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제는 지속적인 수탈정책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식민지재정의 확보, 산업자본의 형성, 일본상품시장의 확대 등 산미증식계획의 실효성은 컸고, 이에 따라 한국농민은 토지를 더

34) 김중규, 2007,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 - 근대 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 문화체육과, 48-50쪽.

35) 군산문화관광, “발산초등학교의 비밀”

([http://tour.gunsan.go.kr/index.gunsan?menuCd=DOM\\_000000702006002005](http://tour.gunsan.go.kr/index.gunsan?menuCd=DOM_000000702006002005)).

욱 상실하게 되어 일본인 대지주에게 토지집적의 축진이 가중화되었다. 이러한 일본인 농장을 통하여 파산위기에 놓인 토지를 헐값에 매점하고, 한국인소작인을 최대로 착취함으로써 토지수탈은 거듭 확대되어 갔다.<sup>36)</sup>

## (2) 문화재 도굴 및 반출

일제는 토지수탈과 같은 경제적인 착취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인 약탈 또한 감행하였다. 시마타니가 자신의 저택 정원 장식을 위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많이 수집하고 약탈했던 것처럼, 청일전쟁 승리 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古刹과 고분은 도굴되고 파괴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도자기 연구에서 전문가였던 고야마 후지오(小山富士夫)는 1937년 「高麗의 高陶磁」라는 자신의 글을 통해 ‘오늘날까지 고려고분의 도굴은 끊인 날이 없고, 그동안 출토시킨 고려 古陶器의 수는 몇 십만, 몇 백만 점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언급했다. ‘고려자기, 고려청자’라는 용어자체가 일본인들이 먼저 쓰기 시작한 말이었다는 점만으로도 당시 일본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화재 약탈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 3) 시마타니 금고의 역사적 의의

시마타니 금고는 일본인인 시마타니 야소야가 값싼 쌀을 찾아 군산에 토지를 매입한 후 점차 대토지의 농장주가 되면서 세운 건물이라는 점에서 토지수탈에서 시작되어 산미증식계획으로 연결되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착취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금고는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그 기능과 형식이 독특한 건물로 일제강점기동안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수탈이 가장 심했던 전북 및 군산 지역 근대사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sup>37)</sup> 한편 시마타니 식민지 경제 착취에 그치지 않고 축적된 재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재를 이곳에 수집하였다. 문화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적 창조력과 정신성 및 삶의 전통을 나타낸다. 시마타니의 예술품 컬렉션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문화재가 일제 강점기에 약탈 및 파괴되고 본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 안에 존재하는 약탈 한국문화재의 총 수량과 종류는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못하다.<sup>38)</sup> 구도심 내에 현존하고 있는 일반적인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과 달리, 시마타니 금고는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약탈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9)</sup>

36) 조중근, 2001, 「1920년대 군산·옥구지역에 대한 일본의 토지수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역사교육전공.

37) 김중규, 위의 단행본, 48-50쪽.

38) 이구열, 1997, 「日帝의 한국 문화재 파괴와 약탈」,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79-385쪽.

39) 김중규, 위의 단행본, 50쪽.

## 6. 호남관세전시관(구 군산세관)

### 1) 옛 군산세관의 설립

대한제국은 1899년 군산을 개항하고, 항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 1905년부터 축항공사를 시작했다. 이때를 제 1차 축항의 시작이라 하는데, 1차 축항 기간인 1908년에 옛 군산세관(이하 군산세관)이 만들어졌다. 2,400여평 넓은 부지에 망루<sup>40)</sup> 등 여러 부속 건물을 지었으나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본관 건물만 남아 있다.<sup>41)</sup>

세관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프랑스인 혹은 독일인이라고 전해진다. 개항기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총괄했던 총세무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해관 직원이 서양인이었다는 점. 경제가 파탄난 대한제국이 부두공사를 미루자 중계무역이 절실했던 일본 상인들이 라포르라는 프랑스 세관 책임자를 매수



▲ 군산세관

해 8만 6천원을 투자케 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설일 수 있다.<sup>42)</sup> 하지만 1905년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종교인을 제외한 서양인 거의 전부가 우리나라를 떠났고, 세관 건설을 전담한 건축소의 대부분이 일본인 기술자였기에 일본인이 설계했을 수도 있다.<sup>43)</sup> 무엇이 맞는지는 아직 모른다.

군산세관의 외벽은 화강암을 기초로 벨기에에서 들여온 적벽돌을 얹었고, 내부는 나무와 회벽을 이용해 마감처리를 했다. 건물의 지붕은 고딕 양식이고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현관의 처마를 끄집어 낸 것은 영국의 건축양식으로, 유럽의 건축양식을 융합한 근세 일본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sup>44)</sup> 이런 특징을 지닌 다른 건물로

40) 망루는 사무실과 선박입출항을 감시하기 위해 지어졌다. (김종길, <사라질 뻔한 100년의 유산, 옛 군산세관>, <<오마이뉴스>>, 2010.10.1 기사.)

41) 최성식(군산세관장), 「개청 100년 이야기 <옛 군산세관 편>」.

42) 김종규, 2003, 『군산 - 답사, 여행의 길잡이』, 나인, 206쪽.

43) 송석기, <대한제국 관세행정의 유일한 건축유산, 구 군산세관 본관>, <<군산대신문>>, 2012.3.7 기사.

44) 김종규, 같은 단행본, 207쪽.

는 서울역과 한국은행 본점이 있다.

세관은 본래 청나라가 17세기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항구에 해관(海關)을 설치하고 관세를 징수한 데서 유래한다. 대한제국도 해관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1905년 일본이 해관의 권한을 독점하며 일본의 명칭을 따라 세관으로 바꾸었다.<sup>45)</sup>

## 2) 쌀 수탈 창구로서의 군산세관

일본인이 쓴 「群山府使」에 의하면 개항 직전 군산은 4~5개의 작은 구릉 허리에 몇몇 조선 누옥이 있고 일본인 거주자는 7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한다.<sup>46)</sup> 하지만 개항 후 일본 상품의 수입과 군산을 비롯한 호남의 쌀 수출이 증가하자, 일본은 군산에 수출·입에 필요한 여러 건물과 교통시설을 만들었다.

일본이 요구하긴 했으나, 관세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대한제국이 자의로 군산을 개항했다고 혹자는 말한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대외3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쓰였다.<sup>47)</sup> 애초 무리한 대외차관은 일본의 압력에 의한 것이니, 개항이 대한제국의 자의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자의’라 할 수 있을까.

당시 세워진 많은 건물들이 그러하듯, 군산세관 또한 일제 수탈의 창구였다. 세관을 통한 쌀의 수출은 개항 이후 급격히 증가해 1900년도를 기준으로 1903년은 15배, 1907년은 34배, 1910년에는 45배로 증가했다.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에서는 당시 세관 옥상, 해변, 도로 등 눈길이 가는 곳 도처에 쌀이 300, 500, 1,000가마씩 쌓여 총 20만에 달하는 쌀가마니가 있었다고 전한다.<sup>48)</sup> 1899년 이후 12년간 군산세관을 통한 쌀 수출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sup>49)</sup>

군산의 쌀 반출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줄어들었다. 미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본제적 상품의 유입이 많아진 까닭이다. 금융업과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정미업과 경공업이 주였던 군산항의 성격도 달라졌다. 그러다 해방을 맞았고, 군산의 지역경제는 점차 쇠락했다. 일본자본이 철수하며 기술부족, 원료구입난 등의 문제가 생겼고, 쌀 수출항으로서의 기능 또한 상실했기 때문이다.<sup>50)</sup>

---

45) 송석기, 같은 기사.

46) 최성식, 같은 글.

47) 김중규, 같은 단행본, 207쪽.

48) 최성식, 같은 글.

49) 최성식, 같은 글.

50) 박종현, 2006,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건축학과 건축설계전공, 54쪽.

### 3) 군산세관의 문화재 지정- 근대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1993년 군산세관은 새로운 세관의 신축으로 사라질 뻔 했다. 이전까지는, 식민 지기에 지어진 건물은 일제의 잔재이자 민족의 아픈 역사이기에 청산해야 한다는 ‘민족주의론’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군산세관의 철거를 논의하며 다른 담론들이 고개를 들었다. 식민지기 건물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로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역사주의론’이 그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론처럼 식민지기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아가 건축물을 복원하고 관광화 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문화소비론’이 있다.<sup>51)</sup> 논의 끝에 군산세관은 철거되지 않고 문화재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맞는지 놓고 담론들은 대립했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주로 민족주의론과 역사주의론이 부딪혔다. 민족주의론의 완곡한 입장을 보여 주는 장세환 의원은, 근대 건축물의 보존 가치는 인정하지만, 문화재 지정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는 “그 지역의 사회 시대적 배경과 생활상을 알리는 중요한 표상”이라며 “문화재 지정 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sup>52)</sup> 더불어 근대 건축물이 시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일제잔재의 존속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역사주의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건축물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면서, 근대 건축물은 “일본 사람이 설계했지만 조선의 인력과 기술이 들어”갔고 “일제잔재에 대한 물리적 건물청산보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sup>53)</sup>

지자체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활용할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던 데다 역사주의론의 주장이 보태져, 근대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었다. 다만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물 소유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록문화재의 대상이 되었다.<sup>54)</sup>

이런 대립은 단지 문화재 지정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툼 아래에는 근대의 색이 짙은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에 따라 공간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흐른다. 그 생각은 근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맞닿으므로, 담론들의 대립은 꽤나 골이 깊을지도 모른다. 현재는 문화소비론이 우세해 민족주의론은 비교적 잠잠하지만, 담론들의 대립은 사라지지

51)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권 2호, 268쪽.

52) 문예은, 같은 논문, 287쪽.

53) 문예은, 같은 논문, 288쪽.

54) 문예은, 같은 논문, 290쪽.

않았고,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 7. 조선은행 군산지점

### 1)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설립 배경 및 활용: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은행의 전신인 한국은행은 1909년 11월 12일에 개설을 인가받았으며, 11월 24일 군산지점을 비롯하여 지점 4개와 출장소 9개가 동시에 개업하였다. 이어 1910년 「조선은행법」이 발표되었고, 한국은행은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은행은 1911년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주요업무로 조선은행권의 독점적 발행, 토지·금·은의 매매, 국고사무의 취급, 정부대상금 공채의 응모 및 매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반은행의 업무도 겸하면서 식민지 중앙은행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인의 자본축적이나 민족계 일반은행의 업무를 제한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함이었다.<sup>55)</sup>

설립 초 출장소에 불과했던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1916년 지점으로 승격되었으며,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1920년부터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1922년에 완공되었다.<sup>56)</sup> 이렇게 설립된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그 당시 지방의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큰 규모였으며, 건립 당시 군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다. 특히 2층의 기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2층으로 만들고, 지붕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지붕부를 높게 구성하였는데, 이는 높고 위엄 있는 건물의 외관을 과시하면서 조선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자한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일제 강점기 관공서와 은행 및 회사 등의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일제 권력의 중심을 이루었던 본전통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의 주도권을 일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본의 논리가 조선의 항구도시인 군산에 침투함으로써 군산의 구획을 기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되어 가는 군산에서 뚜렷이 두드러지는 중심부와 주변부는 각각 자본의 집중과 소외라는 양상으로 이질화되어 있고, 그 이질성은 다시 그 두 공간을 소통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sup>58)</sup>

55) 임유미, 2012,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역사와 그 활용」, 군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쪽.

56) 문화재청·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91쪽.

57) 임유미, 앞의 논문, 9-10쪽.

이러한 이질성은 일제 강점기 군산 민중의 '생활상보고서'로 간주되는 채만식의 소설 『탁류』<sup>59)</sup>에 등장하는 “푸른 지붕의 xx은행 군산지점 당좌계”의 ‘고태수’라는 인물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고태수는 서울 출신으로서 군산의 중심부에 이식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가 일하는 은행이라는 공간은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가 이식된 곳으로서, 고태수는 이곳에서 횡령한 돈으로 초봉과 매매결혼을 함으로써 ‘초봉’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인물이다.<sup>60)</sup> 한편 초봉의 아버지인 정주사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초봉이를 사기꾼이요 好色漢이며 성격파탄자인 은행원 고태수와 결혼시키려 한다. 부인 유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행의 조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초봉이의 삶을 좌우할, 고태수와의 결혼을 무책임, 무분별하게 함께 도모했던 것이다. 정주사 부부는 결과적으로 초봉이의 비극적인 삶을 꾸민 공모자가 되는 셈이다.<sup>61)</sup>

조선은행은 각 지방의 중요 도시에도 금융경제의 뿌리를 내렸고, 쌀의 보고(寶庫)였던 군산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군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쌀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어 지리적으로 쌀 생산이 많고 물자이동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군산창이 설치되었고 왜구에 의한 쌀 수탈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조일수호조약 이후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일본인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산미증식계획으로 나타날 만큼 군산이 가진 쌀과 토지라는 자원은 경제적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조선은행의 설립과 발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개설된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군산 경제의 중심지였던 본정통에 거점을 두고 일본인의 경제 활동을 도우며 해방 직전까지 식민지 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결국 일제 식민지배의 중심에는 식민지 조선의 중앙은행이었던 조선은행이 있었던 것이다.<sup>62)</sup>

## 2)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현재와 향후 전망

한국이 해방되면서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폐쇄되었으며, 해방 후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만 수행하는 한국은행으로 바뀌고 전주로 이전하면서 1953년 11월에 한일은행에 인수되었다.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될 당시에는 부속 공간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한 것 이외에는 외관상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구조와 외관

58) 이희정, 1998, 「蔡萬植 「濁流」의 人物과 空間 研究: 1930年代 朝鮮의 比喩的 地圖 그리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쪽.

59) 김미정, 2012, 「『탁류』의 토포스」,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Vol. 55, 66쪽.

60) 김미정, 위의 논문, 72-73쪽.

61) 이희정, 앞의 논문, 68-69쪽.

62) 이희정, 위의 논문, 27쪽.

등이 크게 변화되었다. 2층과 중앙부가 한 공간이었지만 이때부터 1층과 2층이 완전히 나뉘었으며 이후에도 많이 개조되었다. 1984년부터는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 출입구를 내는 등 건물이 크게 변경되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크게 훼손되었고 잠시 노래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무분별한 사용과 방치를 거듭하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이름만 가진 건물로 군산의 식민지 근대를 대표하는 표상물로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제시기 지어진 근대 건축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이 확립되면서 일제시기 근대 건축물은 도시 속에 자리한 역사적 문화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sup>63)</sup> 따라서 현재 군산시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대 건축물들을 근대역사경관 회복 및 지역의 재생이라는 목적 아래 빠른 속도로 전면적인 수리와 복원, 그리고 새로운 용도를 설정하고 있다.<sup>64)</sup>

현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근대건축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용 방안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 있을 뿐 그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방안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역사적·건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당시의 식민지 근대를 되짚어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sup>65)</sup>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산지점 관사 설립 기사와 관련한 조용관 이야기로, 군산 근대 역사가 식민지 수탈로 얼룩진 어두운 일면 뒤에 항일적 측면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둘째, 군산의 일본인 대지주 응본과 도곡에 대한 이야기. 이들과 같은 지주의 모습과 흔적은 군산 근대의 실질적인 수탈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현장학습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연계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하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삶과 조선인 소작농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임.

셋째, 군산지점과 관련하여 군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야기를 만들어 군산의 금융경제와 생활상이 연결된 군산 금융사를 확인 할 수 있게 함.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지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군

63)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 14 No. 2, 271쪽.

64) 임유미, 앞의 논문, 31쪽.

65) 임유미, 위의 논문, 35쪽.

산에서 금융·경제적 지배체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를 가진 건물이다. 소설 탁류에서 묘사되었던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어두웠던 사회현실을 대변하는 상징물이기도 하고, 조선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끊임없이 항일하는 조용관과 같은 인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레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쇠락했던 과정과 한때 군산에서 번성했던 유흥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구도심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끌었던 중심 건물로, 과거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그 도시민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기억하고 환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 <참고문헌>

-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
-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 한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2.
- 김중규, 2007,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 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문화체육과.
- 조중곤, 2001, 「1920년대 군산·옥구지역에 대한 일본의 토지수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역사교육전공.
- 이구열, 1997, 「日帝의 한국 문화재 파괴와 약탈」,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중규, 2003, 『군산 - 답사, 여행의 길잡이』, 나인.
- 편집부, 2010, 「군산지역 근대역사문화유산 답사」,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 김일수, 2000, 「우리시대 공간 읽기 16 : 군산, 근대사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도시」, 『국토』 222호.
- 최성식(군산세관장), 「개청 100년 이야기 <옛 군산세관 편>」.
- 박종현, 2006,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건축학과 건축설계전공.
- 김종길, <사라질 뻔한 100년의 유산, 옛 군산세관>, <<오마이뉴스>>, 2010.10.1. 기사.
- 송석기, <대한제국 관세행정의 유일한 건축유산, 구 군산세관 본관>, <<군산대신문>>, 2012.3.7. 기사.
- 김미정, 2012, 「『탁류』의 토포스」,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5권.
- 문화재청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이희정, 1998, 「蔡萬植 「濁流」의 人物과 空間 研究: 1930年代 朝鮮의 比喻的 地圖 그리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유미, 2012,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역사와 그 활용」,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 사이트>

-군산문화관광, “등록문화재182호. 일본인 농장창고”

[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2005002000&orderBy=REGISTER\\_DATE:DESC&startPage=1&dataSid=173](http://tour.gunsan.go.kr/board/view.gunsan?boardId=BBS_0000052&menuCd=DOM_000000702005002000&orderBy=REGISTER_DATE:DESC&startPage=1&dataSid=173)

-군산문화관광, “발산초등학교의 비밀”

[http://tour.gunsan.go.kr/index.gunsan?menuCd=DOM\\_000000702006002005](http://tour.gunsan.go.kr/index.gunsan?menuCd=DOM_000000702006002005)

-군산 문화원, <http://gunsan.kccf.or.kr>.

-군산문화관광, [www.tour.gunsan.go.kr](http://www.tour.gunsan.go.kr).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



**Ⅶ. 일제하 지식인의 활동과 불교, 내소사,  
고창읍성**

## 1. 김성수와 채만식

### 1). 김성수 생가

인촌 김성수의 생가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437에 위치해 있다. 부지는 330m<sup>2</sup> 이며 안채 등 건물 5동의 규모를 가진 유적이다. 인촌 김성수는 반민족적 행위를 한 친일파로 비난을 받는 동시에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창간하는 등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큰 역할을 한 문화민족주의자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촌 김성수의 생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에 먼저 김성수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생가 건물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김성수의 생애를 알아볼 때에는, 그가 어린 시절과 청년시절 고향에서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그의 이후 행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중점을 두고 알아볼 것이며, 그의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할 것이다



#### (1) 인촌 김성수의 생애

김성수는 1891년 10월 11일 전라북도 고부군 부안면 인촌리 에서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세 살 때 큰 아버지 김기중의 양자로 들어갔다. 김성수가 태어난 때는 조선 말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문란한 정치 등의 영향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했고, 민란이 자주 발생하였다. 김성수가 태어나고 3년 뒤인 1894년 멀지 않은 곳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한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김성수의 아버지인 김기중과 김경중 형제는 줄포를 통한 일본으로의 미곡무역에 종사함으로써 거대한 토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sup>1)</sup> 이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 대에 재산을 불린 것이 일제 정책에 편승하고 소작인들을 착취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성수의 집안은 당시 호남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는 것이다. 김성수는 이후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감에 따라 양쪽 집으로부터 재산을 동시에 물려받게 되었고, 이는

1) 이완범, 2009 「김성수의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협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한국민족운동사학회), 405쪽

유학생생활을 마친 이후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sup>2)</sup> 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생가·養家 전체 자산이 400,000엔 있으며, 본인의 자산으로 100,000엔이 있다고 기록되어있을 정도였다고 한다.<sup>3)</sup>

그러나 그가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이러한 재산에 의해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후에 김성수가 독립운동에 돈을 사용한 것은 어린 시절 그의 주변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장인도 학자이자 애국계몽운동의 지도자였다고 한다. 그는 유년기에는 집에서 한학을 배웠다. 이 때 김성수의 부모는 선생을 집으로 초빙하여 아들을 교육하였으며 주변에 사는 아이들도 함께 배우게 하여 김성수의 집은 서당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sup>4)</sup> 즉, 김성수는 유년기에 유교와 동양철학 등 전통적인 학문을 공부했던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김성수의 생부와 양부는 대한제국 시기에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자강운동에 참여하여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sup>5)</sup> 13세 때, 김성수는 창평의 명문가이자 선각자인 고정주(高鼎柱)의 딸인 고석(高光錫)과 결혼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이자 애국계몽운동의 지도자였던 장인이 설립한 영학숙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 때 김성수를 위해 장인인 고정주는 서울에서 영어선생을 모셔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김성수와 평생을 함께 하게 된 고하 송진우를 만나게 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sup>6)</sup>

1907년 그의 가족들은 인촌리에서 줄포리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고, 따라서 군경의 보호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줄포로 이사를 갔다는 주장이 있다.<sup>7)</sup> 반면에 이사 이유를 경제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이유로 보기도 한다. 당시 좌절한 농민군들의 무차별적 습격에 따라 좀 더 안전한 줄포로 이사한 것이며, 동시에 쌀의 국내교역에 투자하고자 했던 아버지들 김기중과 김경중이 중요한 상업항인 줄포로 이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줄포로 이사한 김성수는 1907년부터 내소사에서 송진우, 백관수등과 함께 공부했으며, 목포의 금호학교에서도 영어 등을 배운다. 또한 일본에 유학중이던 <임격정>으로 유명한 홍명희에게서 일본의 발전상을 듣는다.<sup>8)</sup> 이 당시 헤이그 특사에서의 이준 자결소식과 일제 침략으로 인한 혼란을 보며 김성수를 비롯한 송진우, 백관수 이 세 청년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

2) 김중순, 1998 「문화민족주의자 김성수」 『一潮閣』, 36쪽

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성수

4) 김중순, 1998 위의 책, 43쪽

5) 이완범, 2009 앞의 논문, 406쪽 참고

6) 오수열, 2010 「인촌 김성수의 생애와 친일행적 논란」 『서석사회과학논총』 3(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4쪽 참고

7) 신운용, 2012 「김성수의 친일외식 형성과 전개」 『선도문화』, 13(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487쪽 참고

8) 신운용, 위의 논문, 488쪽

게 된다.<sup>9)</sup> 이때가 1908년으로 김성수가 18세 때의 일이다. 이후 김성수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과 합병한 것에 분개하여 돌아간 송진우를 뒤로 하고, 실력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해나간다. 이 때 와세다 대학의 설립자인 오쿠마 시게노부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10)</sup> 이후 김성수는 26세에 중앙고보를 설립하였으며, 이 뿐 아니라 1932년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교육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고자했다. 또한 경성방직을 설립하였으며, 동아일보를 창간하여 다른 친일신문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에 한 활동들 주요한 것들을 보자면, 1. 언론에 학병(學兵) 동원을 독려한 사실, 2.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흥아보국단 등 관변조직에 참여한 사실, 3. 시국강연의 강사로 일제의 침략정책을 선전한 사실, 4. 군용기 제작비로 기금을 희사한 사실<sup>11)</sup> 등을 근거로 하여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는 김성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2) 김성수 생가 건물

김성수의 생가건물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가는 그의 조부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조선 후기의 부농 주거형태를 볼 수 있으며, 큰집과 작은집이 앞뒤로 북쪽을 바라보고 지어져 있다. 큰집에는 안채, 사랑채, 곳간채, 안 문간채, 바깥 문간채 솥을대문 등이 있으며 작은집은 큰집에 비해 곳간채만 없을 뿐 집의 규모나 격식에 큰 차이가 없다. 다른 남부지방의 민가와 동일하게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집의 굴뚝은 1m가 안되어 낮은 편인데, 건축적으로는 굴뚝이 높을수록 연기가 잘 빠진다. 굴뚝이 낮으면 밥하는 연기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 밥을 굽는 주변 이웃들을 위한 배려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14)</sup>

## 2) 채만식 문학관

채만식 문학관은 재향 소설가 백릉(白菱) 채만식의 문학 업적을 기리고 창작 저작물과 유품 등을 수집하여 상설 전시하고자 2001년 3월 10일 개관하였다.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설 「탁류<sup>15)</sup>」의 무대

9) 오수열, 2010 앞의 논문, 5쪽

10) 오수열, 2010 앞의 논문, 7쪽

11) 오수열, 2010 앞의 논문, 18쪽

1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김성수 생가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수 생가

14) 이종근, 2010 「한국의 옛집과 꽃담」, 『생각의 나무』, 186쪽

인 금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채만식 문학관에서는 일제 강점기 채만식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친필 원고, 개항 100주년 자료 등을 전시하여 관객에게 질 높은 문학의 향기를 제공하고 문화 도시로서 군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시민, 청소년과 호흡을 함께 하는 다양한 문학 행사를 마련하여 문학 교육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로비



전시실



자료보관실



영상 세미나실

채만식문학관은 1층의 로비와 전시실, 자료보관실, 2층의 로비와 영상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 로비에는 채만식의 인물사진, 작품 속의 군산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은 중편소설 「배비장<sup>16)</sup>」의 육필원고, 사진자료, 편지, 졸업증명서 등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채만식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작가의 치열한 삶의 여정을 시대에 맞춰 파노라마식으로 소개하고 선생의 목소리를 재연하여 사실감 있게 전시하고 있다. 자료보관실에는 채만식 선생에 관한 각종 자료 및 논문, 채만식의 발간도서 등이 보관되어 있어 채만식 선생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군산시 향토 작가들의 도서들도 비치되어 있다.

15) 채만식이 쓴 장편소설.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로, 식민지 시대의 혼탁한 물결에 휩쓸려 무너지는 한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16) 판소리로 전해져오는 설화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배 비장과 기생 애랑의 일화를 통해 양반에 대한 서민들의 보복과 양반계층의 위선을 폭로한 내용을 채만식 특유의 풍자적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2층의 로비에는 채만식의 인물사진 및 임종 시의 익산 초옥 사진과 월영공원에 위치한 채만식 문학 비 사진 등이 전시되어있다. 50석의 규모로 이루어진 영상세미나실에서는 오페라 탁류 및 채만식의 일대기(한국문학기행)를 관람할 수 있으며, 각종 문학 강좌 및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한 문학관 주변은 소설 「탁류」 속 콩나물 고개를 상징하는 둔땀이 오솔길, 호남평야에서 걷어 들인 쌀을 실어오는 기차길 등 시대를 형상하며 작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미두, 백릉, 청류 등의 문학광장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다.

### (1) 채만식의 생애

채만식은 전북 옥구군 동산리에서 1902년 조우섭과 채규판의 6남매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채만식의 아버지 채규섭은 잔반(殘班) 출신으로 유교적 교양을 몸에 익힌 농촌의 소지식인이었다. 그는 개항 이후 확대된 자본제적 상품경제와 교류하면서 합리적 농업경영에 성공함으로써 채만식의 유년 시절을 전후해서는 중농, 부농에 해당하는 정도의 토지를 소유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채만식은 중앙고보와 동경유학까지도 할 수 있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귀국하고 학업을 중단하였다.

1920년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 20살이던 은선홍과 결혼을 했고, 무열과 규열 두 아들을 낳았으나 숙명여고를 나온 서울 출신의 신여성과 동거하여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냈다. 1922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제1와세다고등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당시 채만식은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을 때에는 가세가 기울어 있었다. 첫 작품인 「과도기」를 탈고하고, 1924년 강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취직한다. 1925년부터 약 1년 동안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는데, 그때 단편 「세 길로」가 「조선문단」 3호에 추천된다. 1931년 개벽사에 입사하여 잡지 「별건곤(別乾坤)」에 문예담당 편집인으로 참여하게 된 이후, 사회주의적 지식인으로서의 이념을 전개, 동반자 작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1933년 그는 장편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개벽사를 그만두고 조선일보로 직장을 옮긴다. 이 시기 그는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과 희곡 「인테리어와 빈대떡」등을 발표한다.

1936년 이후 그는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개성으로 이사하여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창작생활을 계속하였다. 당시 희곡 「심봉사」를 조선일보에 연재하려 하였으나 전문 삭제당했다. 1937년 「탁류」를 조선일보에 연재했고, 1938년에는 「천태평춘」(후에 「태평천하」로 개제)을 『조광』에 연재했다. 생활이 어려웠던 채만식은 형들을 도와 금광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일제 말기와 해방 직후의 작품에는 그가 대일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반성이 소상하게 드러나 있다.

「소망」(1938), 「패배자의 무덤」(1939)에는 대일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채만식이 겪었을 극심한 내면 갈등과 정체성의 혼돈이 드러난다. 1940년에 발표한 「냉동어」에서는 내선일체의 하위범주인 내선통혼이나 내선연애 모티프를 동원하는 서사 전략을 통해 텍스트의 무의식 층위에서 대일 협력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1943년에 쓴 「鴻大(홍대)하옵신 성은」 등의 잡문과 1944년의 장편소설 『여인전기』에는 대일협력의 메시지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방 후 1948년에는 「민족의 죄인」을 써서 자신의 대일협력을 반성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1946년에는 「허생전」, 「맹순사」, 「미스터 方」, 「논 이야기」 등의 풍자적 소설을 발표했다.

채만식은 1945년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으로 낙향하였다가 46년 이리의 고현동 중형집으로 옮기나, 이미 그는 이때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며, 빈곤과 실의 속에서 1950년 5월 이리시에서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에 친한 후배 시인에게 원고지 20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맡에 그걸 놓고 죽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 (2) 채만식 문학의 흐름

채만식은 일반적으로 발달한 풍자 정신으로 인간과 세태를 묘사하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통절한 비판정신으로 일관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하듯 ‘채만식 문학’의 키워드는 보통 풍자와 비판으로써 설명된다. 그러나 채만식의 풍자가 처음부터 두드러졌던 것은 아니었다.

채만식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 그는 주로 전통과 근대의 모순에 주의를 기울였다. 1923년 탈고 후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1973년 채만식의 아들에 의해 비로소 공개된 그의 작품 『과도기』에서는 전통문제에 있어 근대를 접하던 식민지 지식인들이 처한 이중적 질곡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화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보편적 가치를 잃어버렸으면서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전통, ‘조혼’ 문제이다. 이 소설의 실질적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정수는 이른 나이에 결혼한 아내와 낯선 일본 여인과의 연애가 가져다주는 불안하고도 이질적인 자유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정수는 일본여인과의 연애생활을 청산하고 급히 귀국하는데, 이는 피억압민족의 일원으로서 당대 지식인이 느끼던 정체성의 위기를 반영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1933년 발표된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통해 가부장적 권위 앞에 무시당하며 부당함을 느끼는 개화기 신여성의 시각을 통해, 전통과 근대의 충돌을 그려내었다.

1930년대 이르러서는 채만식의 해학과 풍자가 작품세계에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1933년 발표된 『레디메이드 인생』은 일제 식민지 구조에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과 지식인으로서의 고

귀한 이상마저 포기해야하는 좌절감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이는 채만식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당시 지식인 공통의 패배의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탁류』(1937), 『태평천하』(1938)에서 해체되어가는 전통적 풍속과 일제의 경제정책에 예속되어가는 식민지인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웃는다. 일제 하 서민들의 무지를 폭로한 『치숙』(1938)에서는 특히 “아저씨가 배운 경제학은 돈을 버는 학문인데, 사회주의 운동은 부자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잖소”와 같은 ‘말’의 아이러니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1940년대 채만식은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민족개조론>을 옹호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그의 친일은 어떠한 허무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1941년 발표된 『사호일단』과 같은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사호일단』의 주인공 박주사는 재력가이고 무슨 일이든 못 할 것이 없지만, 정작 본인은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 책장에는 1920년대 지식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책들이 가득하지만, 현재의 그는 재롱스러운 물건을 구입하거나 신문에 실린 사소한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을 죽인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아무런 결단도 못하고 목표설정도 할 수 없던 일제말기의 무력감과 공허, 그리고 수동성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어쩌면 채만식 그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었을지도 모른다.

해방 후 그는 『역로』(1946), 『민족의 죄인』(1948~9)을 발표하며 일제에 동조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한편, 해방 이후의 상황적 아이러니에 주목했다.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이 일제 시기의 순사가 해방 후에도 다시 치안을 담당하는 당대 혼란한 상황을 그려낸 『맹순사』(1946)와, 미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방삼복을 통해 지배체제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고발한 『미스터 방』(1946)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불교의 근대화, 일본화, 민중운동

통감부시기 종교정책의 목표는 중요한 종교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를 식민지화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일본의 불교를 조선에 들여오고 조선불교의 친일화를 시도했다. 조선 500년 역사동안의 억불정책으로 인해 불교계는 정치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미약해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대적인 불교장려정책은 조선의 불교계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sup>17)</sup>

1908년 불교계 대표 52명이 원흥사에 모여 최초의 종단인 원종을 설립했고 그 수장으로 해인사의 이희광이 대표로 추대되었다. 그는 전국 72개 사찰의 동의하에

17) 申淳鐵, 1994.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17-18, 735-739쪽.

일본조동종과 한국불교의 통합조약을 체결했으나 한용운 등의 승려들이 임제종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부딪혔다. 이렇게 불교 종단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고 총독부의 압력에 의해 원종은 '30본산주지회의원'으로 이름이 변경됐고 임제종은 해체되었다.<sup>18)</sup> 통감부는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하여 불교계의 이러한 반대운동이 항일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없애려 했다. 사찰령은 사찰의 모든 권한을 주지에게 집중시키고 주지임명권을 총독부에서 관할하게 하여 한국불교를 행정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당시 한국불교계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불교진흥의 계기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sup>19)</sup>

근대의 불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근대화의 흐름에의 편승 그리고 일본불교와는 다른 조선불교만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였다.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일본의 불교는 상대적으로 선진적이었기에 조선의 불교는 그들의 여러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면서 근대화를 이루려 했다. 종교의 근대화는 새로운 사회에서도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유용하며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기위해 필요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고수하던 전통을 포기하는 개혁을 시도했다. 승려들에게 근대학문을 교육시키고 부분적 육식을 인정하며 혼인까지 허용했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당시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교가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지와 피식민지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종교계에서도 근대화를 위해 일본의 선진모델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선만의 정체성을 찾는 데 힘쓰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의 딜레마에 빠진 불교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추진력과 능력이 없었기에 기독교가 조선의 민중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중운동의 중심역할을 하게 됐다. 당시 일본의 종교는 불교였고 반 기독교적 정서를 토대로 했었기에 조선의 불교는 매우 모순된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다. 종교의 근대화를 위해선 식민국을 모델로 하여 추진력을 얻어야하고 피식민국인 조선의 종교라는 정체성을 위해선 항일이라는 민족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전통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sup>21)</sup>

만해 한용운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처육식을 일본불교의 특성으로 보지 않고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총독부의 감시하에 있는 종단에 분리된 민족전통성을 가진 새로운 종단을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방법론이라면 일본의 불교를 보고 배우는 것이 민족정서에 반하는 친일행위가 아니게 될

18) 김순석, 2008, 「근대 일본 불교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집, 88쪽.

19)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61~67쪽.

20) 조성택,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 민족주의적 역사기술에 관한 비판」, 『민족문화연구』 53호(2010.12.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91~593쪽.

21) 조성택, 위의 논문, 595~596쪽.

수 있고 고유한 정체성도 만들 수 있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만해는 대처육식에 관한 기존의 사람들과 승려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실패했다.<sup>22)</sup>

해방 이후 불교에는 식민지시기에 겪었던 문제가 친일과 민족주의의 대립구도로 형성되었고 60년대에 와서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종단 조계종이 창설된다.

### 3. 내소사

#### 1) 내소사의 위치 및 가람의 배치



변산반도의 남단인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한다. 내소사는 능가산 중턱에 위치하지만 전형적인 계단형, 산지형 가람이 아닌 평지형 가람에 가깝다. 현재 내소사 가람은 중심 전각인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삼성각, 좌측에는 관심당이 배치되어 있다. 대웅보전 앞에는 삼층석탑, 그리고 삼층석탑 우측에는 종각이 있다. 삼층석탑 앞에는 봉래루가 위치하고, 봉래루 앞에는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다. 일주문부터 천왕문까지 전나무 숲길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sup>23)</sup>

22) 조성택, 위의 논문, 599~600쪽.



## 2) 내소사의 역사

내소사의 역사를 정리한 사지가 한국전쟁 중 불타버리는 바람에 역사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995년 건립된 <내소사사적비>에 따르면 1633년(인조 11)에 청민이 증건하였고, 1902년 관해가 보수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도 내소사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에서 그 역사를 추측해볼 수 있다.

이규보의 「남행일일기」에는 “경신년 8월 20일은 아버님의 제삿날이다. 하루 앞서 변산 소래사에 갔는데, 벽 위에 고 자현거사의 시가 있었다. 나도 이에 화답하여 두 수를 벽에 썼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소래사는 내소사로 이름이 바뀌기 이전의 것이다.

또한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래사는 신라의 해구두타가 창건하였는데, 크고 작은 두 소래사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김시습의 『매월당집』, 기준의 『덕양유고』 등 조선시대 문집에 내소사에 관한 시가 등장 한다. 이를 보면 15세기 즈음에는 내소사가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뀐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sup>24)</sup>

## 3) 내소사의 문화재

### (1) 대웅보전

대웅보전은 내소사의 중심전각으로서, 석가모니부처를 봉인하기 위한 건물이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우측에 대세지보살, 좌측에 관세음보살이 봉인되어있다. 앞쪽 문에 새겨진 정교한 꽃살무늬 조각을 통해 당대의 조각 솜씨를 엿 볼 수 있다. 1633년 청민대사가 이 절을 보수할 때 지은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건축 양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보물 제 291호로 지정되어있다.<sup>25)</sup>

23) 배영일, 「내소사 괘불」, 국립중앙박물관, 2011, 8-9쪽 참고

24) 배영일, 위의 책, 11-12쪽 참고

25) 배영일, 위의 책, 13-14쪽 참고

## (2) 청림사 동종

동종은 사찰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사용하는 종이다. 내소사 동종은 높이 103cm, 입지름 67cm로 큰 편에 속한다. 종 아래는 종의 연대와 내력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쓰여져 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변산의 청림사 종으로 제작이 되었으나 19세기에 내소사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많은 동종을 제작했던 주금장 한중서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공예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26)</sup>

## (3) 『묘법연화경』

이 경전은 석가모니부처가 주인공인 『묘법연화경』의 내용은 먹으로 옮겨 쓴 것으로 7권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경전을 보관하는 사경보까지 갖추고 있다. 병풍처럼 펼쳐 볼 수 있는 것으로 테두리를 연꽃무늬로 장식하였고, 권마다 설화적 내용을 담은 변상도가 그려져 있다.<sup>27)</sup>

## (4) 내소사 3층 석탑

탑은 부처의 진산사리를 안치하는 곳으로 사찰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건조물이다.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과 상륜부를 세웠고, 기단과 탑신에는 거의 장식이 없다. 1층 탑신과 비교해서 2층부터 높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통일신라 석탑양식을 이은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생각된다.<sup>28)</sup>

# 4. 고창읍성

## 1) 고창 지명의 유래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따르면 고창지역은 마한 54소국 중 하나로 모로비리(牟盧卑離)국으로 불리었다. 백제시기에는 모량부리(牟良夫里)현이었다가 통일신라 시기에 처음으로 고창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창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 모양(牟陽)은 모로(牟盧) 모량(毛良)에서 취해서 쓴 것이다. 모양은 보리(牟)와 별(陽)으로 보리고을로 상징되며, 지금도 고창에서는 보리를 활용하여 청보리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에는 고창현, 조선시대에는 주변의 부안, 영광 일부를 포함하여 고창, 무장, 흥덕 3개 현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914년 고창군으로 합쳐졌다

26) 배영일, 위의 책, 15쪽

27) 배영일, 위의 책, 17쪽

28) 배영일, 위의 책, 20쪽

## 2) 고창읍성 개괄 설명

고창읍성은 조선조 단종 원년(1453)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것으로 모양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고창읍성은 성벽의 둘레가 1,684m, 높이 약 4m, 면적은 50,172평에 이르고, 공북루(북문), 등양루(동문), 진서루(서문) 등의 누각과 옹성 3개소, 치성 6개소, 성 밖의 해자 등 전략적 요충시설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조선시대 고창읍성 안에 있는 관아 건물 22채는 성곽과 공북루 외에는 모두 소실되었는데, 1976년부터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14채가 복원되어 있다. 고창읍성은 자연지형인 산능선을 따라 쌓은 석성이 포곡(包谷)식<sup>29)</sup>으로 돌렸는데, 조선시대 읍치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곽이다. 모양성은 전라좌우도 19개 군,현의 노동력이 동원되어 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시석이 있고 또한 표시석에는 계유소 축송지민(癸酉所築宋芝莢)<sup>30)</sup>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의 축조 시기가 계유년, 즉 1453년(단종 원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창읍성은 또한 조선시대 읍성의 축성 기법과 방식을 원형 그대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모양성은 처음 쌓아 올린 이후 한 번도 개축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성은 왜구 방어를 목적으로 쌓은 연해읍성으로서 호남 내륙방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5년 4월 1일 사적 제 145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이 성과 관련하여 1973년부터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sup>31)</sup>을 전후하여 고창모양성제가 열리고 있다.

## 3) 고창읍성과 다른 조선시대 읍성과의 차이점 그리고 특이한 점

### (1) 성벽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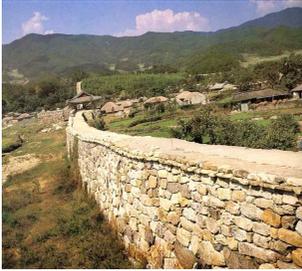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읍성들은 북쪽으로 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평탄한 곳을 골라 쌓았다. 그래서 평탄한 지역에 쌓는 성은 양쪽을 둘로 쌓았는데 고창읍성의 경우에는 나지막한 야산을 따라 지으면서 바깥쪽에만 돌을 쌓았다. 그래서 성 밖에서 보면 성벽 높이가 높은 편이지만 안에서 보면 그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성돌은 대개의 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석을 다듬어 쌓고 사이사이 깎돌을 넣어 맞춘 형태인데 그 돌에는 주춧돌이나 대리석, 심지어 당간지주까지 발견된다. 북문인 공북루의 주춧돌은 높이가 제각각인 것도 특징인데 어떤 것은 높이가 1m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주춧돌 없이 기둥이 땅바닥까지 내려온 것도

29) 성 축조 방식 중 하나 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산 아래까지 축조한 방식 이와는 달리 테뫼식은 산 중턱에서 정상을 가운데 두고 쪽 둘러 쌓은 형태이다.

30) 허경진 저 『한국의 읍성』에서는 계유소축송지정(政)이라 표시되었으나 여기서는 고창군 문화관광 사이트의 표기 방법을 따랐다.

31) 달과 날짜의 수가 같은 중일(重日) 명절의 하나,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같이 홀수 곧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에 해당되나 특히 9월 9일을 지칭한다고 함

있다.



▲ 낙안읍성 성벽



▲ 고창읍성 성벽

### (2) 정문 방향의 차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읍성은 남쪽 방향으로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 읍성의 정문은 남문, 간혹 동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고창읍성의 경우는 북문인 공북루가 정문이다. 고창읍성의 정문이 북쪽인 이유는 일단 지형적인 특성상 동쪽과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북쪽에 정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또는 풍수지리상 남문이 적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남문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 고도 한다.



▲ 해미읍성 배치도



▲ 고창읍성 배치도

### (3) 성문 및 성 내부 구조의 차이

일반적인 읍성은 고을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다. 한자 읍(邑)이라는 글자 자체가 성으로 둘러싸인 고을을 형상화 한 것으로 다시 말해 읍성 내부에 관아는 물론 마을까지 같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순천 낙안읍성의 경우에는 성 안의 집들이 현재도 민속마을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고창읍성의 경우에는 민가가 모두 성 밖에 위치하고 성 안에는 관아 건물만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전국 읍성 가운데 가장 많은 관아 건물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문도 고창읍성은 다른 읍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대개의 성문은 돌로 홍예문을 쌓고 그

위에 문루를 세워 나무로 세운 누각이 썩어 없어져도 홍예문(虹霓門)<sup>32)</sup>만은 남아있다. 그러나 고창읍성의 경우는 주춧돌 위에 나무기둥을 세우고 문짝을 단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른 성과 달리 고창읍성은 성문이 옹성으로 감싸져 있다. 해미읍성, 낙안읍성, 정의읍성 등 다른 읍성에서는 대부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 공주 홍예문



▲ 정의읍성 성문



▲ 해미읍성 진남문



▲ 고창읍성 성문

#### (4) 내부의 비석

##### ① 척화비

척화비는 고창읍성의 공북루 오른쪽에 위치한다. 1871(고종 8) 대원군에 의해 척화비를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고창지역에서는 이듬해인 1872년 고창현감 이동석의 주도 하에 모양성 내의 공북루 오른쪽에 척화비를 세웠다. 척화비 앞면에는 “양이침범(洋夷侵犯) 비전즉화(非戰則和) 주화매국(主和賣國)”이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계아만년자손(戒我萬年子孫) 병인작(丙寅作) 신미립(辛未立)”이 작게 새겨져 있다.

##### ② 고창읍성 비석군

비석군은 현재 모양성 앞 주차장에 2열로 모두 18의 비석이 배치되어있다. 이 비석은 원래 옛 고창현 내에 산재하던 것들인데 보존을 위해서 근래에 모양성으로 옮겨놓았다. 명문의 내용들은 현감, 관찰사에 대한 불망비<sup>33)</sup>(不忘碑) 4기, 현감, 관찰사에 대한 선정비<sup>34)</sup>(善政碑) 4기, 유애비<sup>35)</sup>(遺愛碑) 2기, 판독이 불가능한 비석이 3기로 건립연대는 대개 1639~1881년 사이 고창수령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세운 것들이다.

32)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라는 뜻

33)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어떤 사실을 적어 세우는 비석

34) 선정을 베푼 관리를 위해 진도 지역에 세운 비석, 불망비와 같은 의미

35) 송덕비(頌德碑), 공덕을 칭송하는 문자를 새긴 비

#### 4) 고창읍성과 관련된 전설

##### (1) 고창읍성 축조와 관련된 전설

고창읍성은 부녀자들이 쌓았다는 것인데 고창읍에서 서북쪽으로 8km 지점의 아산면 독곡에 있는 서산고성은 남자가, 고창읍성은 여자가 쌓기로 경쟁을 했었다는 것이다. 부녀자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나르며 성을 쌓아 갔으나, 남자들은 부녀자들을 얕보고 술을 마시면서 게으르게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부녀자들은 성을 축조하면서 남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쪽은 맨 나중에 쌓는 슬기까지 발휘하였다. 결국 부녀자들이 성 쌓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고창읍성은 원형을 잃지 않고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나 서산고성은 쌓다 만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 (2) 성 밟기(답성놀이)

앞에서 소개한 부녀자들이 고창읍성을 쌓았다는 전설은 성 밟기 놀이로 계속 전승되고 있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고 한다. 저승 문이 열리는 윤달에 밟아야 효험이 있으며, 특히 3월 윤달이 가장 효험이 있는 달이라고 한다. 그 중 옛새 날이 저승문이 열리는 날이라 하여 초옛새, 열옛새, 스무옛새에 답성을 하면 더 좋다고 한다. 성을 돌 때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세 번 돌아야 하며 돌고 난 뒤에는 성 입구에 그 돌을 쌓아두도록 하였다. 이는 돌을 머리에 임으로써 체중을 가중시켜 성을 더욱 다지게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뜻은 이 성곽의 축성 배경이 외침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 입구에 쌓아둔 돌을 이용해 유사시의 석전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예지로 머리에 인 돌을 성안에 놓고 가도록 했을 것이다. 또 높은 성 위에서 돌을 머리에 이고 한 손만으로 균형을 잡은 채 두 시간가량 걷는다면 충분한 운동이 되어 무병장수의 길이 된다는 효용성도 있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저승길 노잣돈인 곡식이나 동전을 준비해서 성의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있는 용성이나 치성에 이를 때마다 곡식 봉지나 동전 몇 푼씩을 놓고 “저승길 노수요” 하면서 합장 삼배했다. 또 오르막길에 이르면 “압록강 건너서” 또는 “두만강 건너서” 등 저승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다.

### <참고문헌>

- 이덕화, 2002, 「채만식의 문학의식과 글쓰기」, 『論文集』, 평택대학교, 564-565쪽.
- 공종구, 2013, 「채만식 문학의 대일 협력과 반성의 윤리」, 『現代文學理論研究』 Vol. 54, 현대문학이론학회, 18-19.
- 배영일, 2011, 『내소사(來蘇寺) 괘불 : 보물 제1268호』, 국립중앙박물관
- 申淳鐵, 1994.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 김순석, 2008, 「근대 일본 불교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집 한석회,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 조성택, 2010,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 민족주의적 역사기술에 관한 비판」, 『민족문화연구』 5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참고사이트>

- 디지털군산문화대전([www.gunsan.grandculture.net](http://www.gunsan.grandculture.net))
- 채만식문학관([www.chae.gunsan.go.kr](http://www.chae.gunsan.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www.aks.ac.kr](http://www.aks.ac.kr))
- 내소사(<http://www.naesosa.org/>)

# 달는 글

0 조

김건설, 유원도, 탁현경

2015 연세사학 추계정기 답사지

발행일: 2015.10.30.

답사일: 2015.11.5.-11.7.

2015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여우史이

답사지 편집: 김건설, 탁현경

표지 디자인: 하상진

이번 답사도 제발 무사히...